

공감 그리고

우리 함께,
문화의 바다로

Cover story

- 부산의 문화예산 무엇이 문제인가_전반적인 실태와 문제점
- 지역문화 홀대와 예산배분 _지역문화가 튼튼히 뿌리 내리려면
- 지역 내에서의 예산 분배 방식 _부산 문화예산, 놓아야 할 것과 잡아야 할 것
- 기획좌담

Photo Essay 초량 시장에서

Criticism & Review _Hot Review 부산국제영화제

- 새로운 원년을 맞이한 부산국제영화제, 그 진단과 전망
- 영화의전당, 수영강변의 시각적 장관

_Close Criticism 지역문화 뒤집어 보기

- 미술_현실주의 미학 혹은 휴머니즘의 공간적 확산
- 생활문화_문화의 가치는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
- 문학출판_출판에서 '출판기념회'까지의 문화 표정
- 영화_응시와 기다림의 미학 김영조의 다큐멘터리
- 연극_부산 연극계에서 당장 필요한 것은
- 춤_거리예술창작단 <랄랄라 스트라다>의 2011년 거리 춤
- 음악_임병원 독주회 '바이올린만의 아우라에 취하다'

Culture+ 사람 +공간 +네트워크 +세계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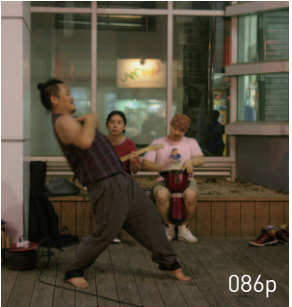


050p 현실주의 미학 혹은 휴머니즘의 공간적 확산

통권 3호 정기간행물(부산광역시 바 01059) 발행일, 2011. 12. 19 등록일, 2011. 6. 23 발행인, 남송우 발행처, 부산문화재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41 4층
Tel. 051-745-7707 홈페이지 www.bscf.or.kr 편집주간, 김정하 편집위원, 김원명, 김용규, 김형진, 심창신, 이승욱, 최학림
편집기획, 부산문화재단 기획홍보팀 디자인 및 제작, 다인커뮤니케이션즈(051-242-4837~9)

부산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계간지<공감 그리고>는 부산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문화예술의 가치와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이 책의 글과 사진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책에 쓰인 글과 사진을 재사용하려면 <공감 그리고>와 저작권자 양측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CONTENTS www.bscf.or.kr Volume 003. Winter 2011



공감 그리고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Magazine

Photo Essay

004 사진, 기록예술
초량 시장에서

Cover Story

부산의 문화예산 무엇이 문제인가

010 전반적인 실태와 문제점 _문화예산의 두 문제 :
재원 확충과 집행 시스템의 혁신
016 지역문화 확대와 예산배분 _지역문화가 튼튼히 뿌리 내리려면
021 지역 내에서의 예산 분배 방식 _부산 문화예산, 놓아야 할 것과
잡아야 할 것
028 기획좌담

Criticism & Review

Hot Review : 부산국제영화제

036 새로운 원년을 맞이한 부산국제영화제, 그 진단과 전망
042 영화의전당, 수영강변의 시각적 장관

Close Criticism : 지역문화 뒤집어 보기

050 미술 _현실주의 미학 혹은 휴머니즘의 공간적 확산

054 생활문화 _문화의 가치는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
058 문학출판 _'출판'에서 '출판기념회'까지의 문화 표정
062 영화 _응시와 기다림의 미학, 김영조의 다큐멘터리
066 연극 _부산 연극계에서 당장 필요한 것은
070 춤 _거리예술창작단 <랄랄라 스트라다>의 2011년 거리 춤
074 음악 _임병원 독주회 '바이올린만의 아우라에 취하다'

Culture +

080 화제의 예술인 _윤희산 같은 열정으로 병마를 극복하다
086 젊은 그대 _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예술,
고단하지만 몽글한 젊음
090 공간 _2011 부산 회춘 프로젝트가 함께 한 공간
094 네트워크 _팜페라 듀엣 휴[HUE:]
용기 있는 결단이 그들을 전진하게 했다
098 세계문화③ _쇠북을 울리는 카리브의 영혼, 노팅힐 카니발
102 우리들의 이야기_독자반응
103 편집위원 칼럼

초량 시장에서

글·사진·김홍희 사진작가



김홍희 : 니콘 선정 세계의 사진가 20인.
부산시 문화예술위원, 사진집단 일우 지도 교수



“겨울 말이야.
그게 어디로 오는지 아니?”

몰라?

그게 말이야, 서민들 소매 사이로 온대,
스멀스멀 벌레 기어들 듯이 소매 사이로 온대.

사람들은 말하잖아?
겨울바람이 불어, 북서풍이 불면 겨울이 온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서민들 소매 사이로 겨울은 오는 거래”



채우지 못한 장바구니의 뒤통리가
시장 골목을 빠져 나가기도 전에 떡볶이 아주머니의 소매는
한 춤 더 내려왔다.

“나야 그래도 따순 거 만진다 아이가.
저기 얼음에 절인 생선, 젖을 대로 젖은 목장갑으로
만질라 해 봐라. 생각만 해도 언성스럽다.
그래도 아직 시장은 따뜻하제? 사람을 기다리는
겨울 털신이라도 있으니.
이 추운 겨울에 그거라도 우리를 기다리지 않으면
마음까지 추버 우짤끼고?”

떡볶이 아주머니에게 천 원짜리 한 장을 쥐어주고 들어선
골목은 해 저문 지 이미 오래.
유리창 너머로 전기장판의 온기가 닿기도 전에
시장 북도의 차가운 바람은 알루미늄 문들을 흔들며
지나갔다.

“재봉틀? 내가 쓴지만 40년이 넘었지.
내 손에 올 때도 중고였으니 이 재봉틀 실제 나이는
나도 잘 모르지.”

청춘을 함께 보낸 재봉틀을 덮으며 건네는 초로의 아주머니의 낯두리는
빠거덕거리는 알루미늄 문을 잠근 후 소매 끝을 여미며 바람 찬 골목 사이로 사라졌다.
초량 시장 골목에 켜졌던 불들이 하나 둘 꺼지고, 인기척이 사라질 때에야
카메라를 접고 골목을 나섰다.
나도 모르게 소매를 여미며 웅크린 채 버스를 기다릴 때,
떡볶이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겨울은 서민들 소매 사이로 오는 거야.”



COVER STORY

부산의 문화예산 무엇이 문제인가

전반적인 실태와 문제점 - 문화예산의 두 문제 : 자원 확충과 집행 시스템의 혁신	010
지역문화 홀대와 예산배분 - 지역문화가 툇튼히 뿌리 내리려면	016
지역 내에서의 예산 분배 방식 - 부산 문화예산, 놓아야 할 것과 잡아야 할 것	021
기획좌담	028



문화예산의 두 문제 :

재원 확충과 집행 시스템의 혁신



전반적인 실태와 문제점

글·구모룡
문학평론가, 한국해양대 동아시아학과 교수

01 들어가는 말

부산의 문화예산은 다른 시에 비하여 높지 않은 반면, 문화산업 예산의 비중은 큰 편이다. 이러한 불균형은 부산의 문화예산 과소 투입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점을 망각하게 한다.

우리 부산이 문화에 투자하는 예산의 비중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과가 공시한 2010년도 문화체육관광 지방예산 총계를 보면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11위에 해당한다.(참고로 다른 시도의 순위를 말하자면 1위 경기, 2위 경북, 3위 경남, 4위 서울, 5위 인천, 6위 전남, 7위 강원, 8위 충남, 9위 전북, 10위 충북이다.) “국고+기금+시도비+시군구비”의 합계가 그러한데 국고 14위, 기금 12위, 시도비 4위, 시군구비 11위이다. 그나마 시도비에 있어 인천, 서울, 경기를 이어 4위라는 점이 위안이 된다. 총예산의 경우 시군구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광역시보다 도가 유리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부산은 서울, 인천 다음이며, 인천의 7천69억7천876만9천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천222억8천626만9천 원에 그친다.

= 구모룡 : 1982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문학평론 당선. 한국해양대학교 동아시아학과 교수. 평문집 <읽는 세대의 문학-세계관과 형식> <구체적 삶과 형성기의 문학> <한국문학과 열린 체계의 비평담론> <산생의 문학> <문학과 근대성의 경향> 등을 냈. 편저로 <예술과 생활-김동석문학전집> <백신에연구> 등이 있음. '소통과 창조를 위한 문화포럼' 운영위원장, '산생인문학연구소' 소장.

02 문화예산에 대한 전체적 조망

세목으로 들어가 하드웨어에 투자하는 예산을 살펴봐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문화시설 건립에 투입된 예산을 보면 전체 광역시도 가운데 15위(1위 서울 1천328억 원, 15위 부산 135억 원)다. 7개 광역시만을 두고 볼 때 6위다. 그나마 이것도 기초단체의 예산(국비+구비)일 뿐 시비 투입은 전혀 없다. 더구나 공연시설과 전시시설 건립은 전무하다. 광역시만을 들 때 서울 인천 대구 광주가 모두 공연시설과 전시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사실에 비춰 큰 차이가 난다. 그런데 한 가지 특기할 일은 문화산업 예산이다. 유일하게 이 분야의 예산은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문화산업을 모든 광역시도가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산시의 문화산업 예산 편중은 기형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7개 광역시만을 두고 지방예산 총계와 하드웨어와 문화산업 예산을 비교하면 <표1>과 같다.

<표1> (단위 천원)

구분 \ 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예산총계	745,331,922	322,286,269	192,322,772	706,978,769	159,377,599	154,811,780	116,695,886
문화시설	132,837,939	13,585,498	15,830,559	45,850,100	16,246,698	18,392,964	3,001,495
공연시설	58,731,674	0	4,300,000	9,683,000	50,123	0	2,000,000
전시시설	36,995,741	0	3,470,000	4,013,120	3,349,877	0	0
문화산업	38,936,486	65,409,682	13,052,850	3,523,628	23,852,504	21,120,821	126,000

(이 표는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과에서 공시한 것을 재구성한 것임. - 이하 동일함.)

문화시설 건립 예산은 15위
문화산업 예산은 1위
기묘한 불균형

<표1>이 말하고 있듯이 부산의 문화예산은 다른 시에 비하여 높지 않은 반면 문화산업에 큰 비중을 두는 불균형을 보인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사실을 들어 영상산업 등에 집중하고 있는 부산시의 정책을 비판한다. 부산의 문화예산은 영상산업 편중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전반적으로 문화예산 자체가 적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전체적인 조망을 놓친 사람들에게는 문화산업에의 편중이 부산의 문화예산 과소 투입이라는 본

영상 산업 편중
문화예술
교육투자 열악

질을 망각하게 하는 효과를 낸다. 문화산업에 대한 과다 투입이 두드러지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은 부산은 문화에 투입하는 예산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문화예술시설 운영에서도 부산은 기본적인 문화기반시설 운영보다 이에 속하지 않는 데 투입하는 예산이 큰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앞서 말한 문화산업과 연관된 기구의 운영 예산으로 보인다.

〈표2〉

(단위 천원)

구분 \ 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문화시설	136,242,121	46,068,226	58,165,018	49,805,512	43,922,709	23,875,788	25,627,792
공연시설	56,815,336	24,136,233	36,065,009	23,065,009	17,148,510	8,850,490	16,948,039
전시시설	32,817,623	7,302,867	2,332,940	4,016,644	5,633,478	5,131,780	4,995,254
도서시설	36,467,932	5,431,706	16,982,869	14,735,381	14,034,315	6,203,639	2,333,618
기타시설	230,927	8,260,371	1,069,329	5,999,222	303,135	320,217	390,000

〈표2〉를 통해 공연과 전시 영역은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도서시설 운영 예산은 턱없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기반시설이 아닌 여타의 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다. 역시 문화 전반의 유기적인 발전이 아니라 특정 문화의 발전에 더 공력을 들이고 있다는 증좌다.

다음으로 문화예술 활동과 문화예술 향유 활동에 투입된 예산을 보자.

〈표3〉

(단위 천원)

구분 \ 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예술인 창작지원	9,197,501	3,511,950	2,469,822	2,363,879	2,888,003	2,229,972	369,834
문화예술 교육	2,623,952	129,792	1,244,248	1,198,584	1,162,032	1,100,964	1,060,202
문화예술 향유지원	85,295,270	16,873,912	8,501,134	18,607,609	16,977,705	6,591,145	7,455,396
문화예술 향유활동 지원	72,760,930	7,970,472	3,884,900	10,568,848	1,736,567	3,400,659	346,951

〈표3〉은 예술인 창작지원과 문화예술 향유 부문의 예산에서 부산이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투자는 매우 열악함을 보여 준다. 전문 예술가에 대한 지원 못지않게 후속 세대를 육성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잘못된 풍경이다. 이는 앞서 도서시설 운영 예산이 적은 것과 더불어 부산이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창의성을 기르는 일에 더 분발해야 함을 지적한다.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는 1)부산의 문화예술 예산이 총액에서 매우 낮고, 2)문화산업 영역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이며, 3)문화예술 교육 등 인력 양성 사업 등에 투자하는 비중이 적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03 집행 시스템의 혁신 측면에서

이제 논의의 범위를 좁혀 비교적 적정 비중을 보이고 있는 예술인 창작지원 예산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현재 부산은 예술인 창작지원을 두 가지 경로를 통하여 실행하고 있다. 그 하나는 지역정부의 직접 지원이고 다른 하나는 문화재단을 통한 공모 방식이다.

전자는 민간 경상보조금으로 민간단체와 기구에 전달되는 형태로서 문화예술이 준공공재이며 사회 구성원의 전체적인 삶을 향상시키는 공적인 외부효과를 지닌다는 점에 지원의 근거를 둔다. 후자는 지원-심의-평가 시스템을 통하여 문화예술의 수월성을 제고하고 지역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기본 지향을 둔다. 이러한 점에서 양자의 지원방식은 상보적인 보충효과를 지남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 지원 방식 사이의 편중 현상에서 나타난다. 2011년 기준으로 부산시의 직접지원과 문화재단의 공모지원을 함께 받은 단체와 기구들의 예산을 집계하면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표4〉

(단위 원)

구분	부산시 직접지원	문화재단 공모지원
협회단위 사업비	4,437,000,000	329,500,000
준 협회단위 예술단체 사업비	1,356,000,000	132,000,000
합계	5,793,000,000	461,000,000

(직접 조사에 의한 통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이하 같음.)

〈표4〉는 단적으로 부산의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현실을 웅변하고 있다. 개별 예술인 지원(소규모임) 등을 제외한, 단체를 대상으로 한 예산 분포(57억9천만 원 : 4억6천만 원)이지만 전체 예산에서 공모에 의한 지원이 17%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하다. 이는 변화하는 지역문화상황을 수용하고 다양한 예술적 욕구를 수렴하기 어려운 지원 시스템이다.

문화적 균등성과
다양성 필요
준민간기구를 매개로 한
시스템 혁신

말할 것도 없이 직접 지원이 가지는 정책적 의의는 분명하다. 안정적인 문화예술 토대를 지속가능하게 하고 시장의 변동에 흔들림 없이 문화예술 영역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화예술 단체를 관리하거나 기존의 관행을 답습하는 경향은 극복되어야 한다. 선진적인 지원경향도 준(準)민간기구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NPO(비영리 민간 단체 : Non-Profit Organization)를 지원하는 추세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지역 문화정책 환경은 이러한 추세에 부응할 수 없다. 문화적 균등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실현하고 창의성이 도시의 활력이 되는 길을 열기 위하여 준 민간기구인 문화재단을 매개로 한 문화예술지원 시스템의 혁신이 선행되어야 한다.

〈표5〉 (단위 원)

구분	부산시 직접지원	문화재단 공모지원
부산예총	510,000,000	14,000,000
부산미협	221,000,000	58,000,000
부산문협	219,000,000	58,500,000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세 단체를 예로 들었다. 부산예총의 경우 민간 경상보조금 5억1천만 원을 지급받아 예술부산 발간, 부산청소년예술제, 부산예술제2011, 7대 광역시도 예술교류 지원, 부산예총 50년사 발간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부산미협은 부산미술제, 부산자랑 시민예술제, 미술의 거리 운영 지원, 영호남 미술교류전 개최 지원, 부평동 창작공간 운영 지원, 부산미술대전과 미술제 출품작 구입 등의 일을 한다. 부산문협 또한 문학도시 발간, 해양문학제 지원, 부산자랑시민예술제, 부산문학상 시상 등을 실행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이 하고 있는 일이 불필요하다든가 미흡하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지역정부로부터 받은 예산을 창의적으로 사용한다면 비판 받을 일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단체 중심, 회원 중심의 폐쇄적인 순환회로 안에서 사업을 펼칠 때 발생한다. 어느 민간단체가 일을 하든 시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그 성과는 올바르게 평가받아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관습과 타성을 좇을 때 새로운 창조활동은 발생하지 않는다.

04 나오는 말

부산이 안고 있는 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의 문제는 먼저 재원의 부족을 들 수 있고 다음으로 지원 시스템의 정체를 지적할 수 있다. 민선 5기가 목표하고 있는 창조도시(혹은 문화도시)를 이루기 위해서 문화예술 재원은 현재의 배 수준으로 상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직접 지원의 변화를 통하여 문화예술의 활력을 수용해야 한다.

아울러 과감하게 민간 경상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을 문화재단으로 이양하거나 사업자 선정공모방식으로 전환하고 문화예술지원금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기성의 틀을 넘어서는 문화 NPO들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도시의 다이내미즘이 문화예술의 활기에서 분출함은 많은 선진국 도시들이 이미 여러 가지 사례로 증거하고 있다. 우리 부산이 문화적으로 활력이 넘치고 창의성이 발전을 추동하는 도시가 되려면 문화예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는 그 누구도 회피할 수 없는 일이다. 남은 것은 ‘혁신이나, 아니냐.’는 선택밖에 없다. ^국했

문화예술 자원 수준의 상향
+ 지행 시스템의 혁신

=

문화적 활력 넘치는 부산
Culturally dynamic BUSAN

지역문화가 튼튼히 뿌리 내리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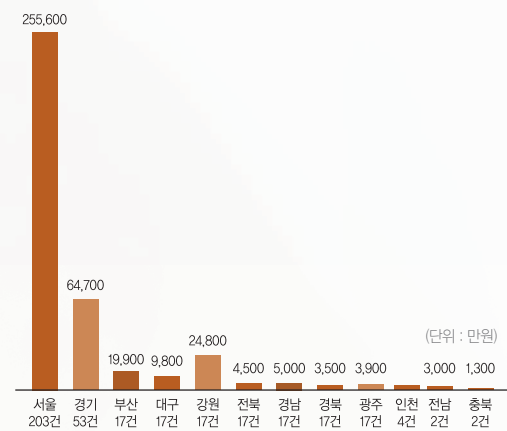
글·김종균 부산일보 문화부 기자

문화 수요와 공급이 중앙에 몰린다고 수도권에만 지원을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면 문화의
확일성과 수도권 집중 현상은 피할 길이 없다. 지역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풍부한 문화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정부가 지방 문화예산 지원에 인색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매년 부
산을 비롯한 각 지역 문화계가 지방 문화예산 확대를 소리 높여 외치지만 돌아
오는 건 허망한 메아리뿐이다. 지방 문화예산이 부족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
한다. 젊은 예술인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지방 문화는 고사하고 말 것이다. 지
방 문화가 설 자리를 잃게 되면 우리 문화는 다양성을 잃게 된다. 창조적이고 독
창적인 문화가 없는 지역민의 삶도 질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경제, 사회뿐 아니
라 문화마저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가 점점 벌어져 지역민의 생활은 갈수록 팍
팍해진다.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가 지방 문화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야 하는 이유다.

1 문화 예산 배분의 실태

지역별 문화예산 현황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
는 것은, 매년 수시로 공모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의 문예진흥기금 사업이다. 지역 구분 없이 전국 단
위로 문화사업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예산을 지
원하기 때문이다. 지역별 예산배분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다.



2010년 문예진흥기금 정기공모사업 각 지역별 예산지원 현황

각 지역에 대한 문화예산 지원 상황을 보면 착잡하
다. 문화예산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편중됐다. 지역별
예산 지원 비율은 매년 별다른 차이가 없다. 지난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사업 중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은 20~30% 수준이다. (올해는 아직
집계되지 않아 지난해 현황을 분석했다.) 수도권이
총 예산의 70~80% 정도를 가져간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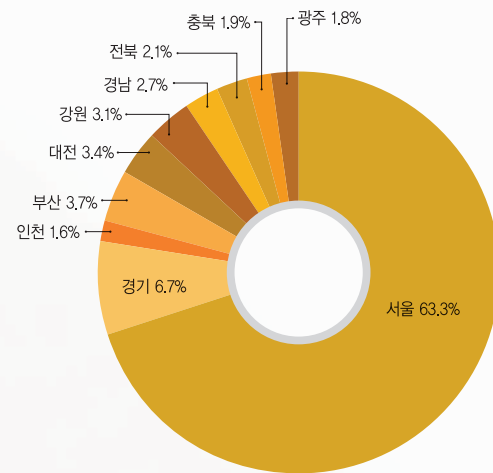
실제로 지난 2009년 10월 초 있었던 2010년 문예
진흥기금 정기공모사업을 살펴보자. 이때 전국에서
총 1천925건이 접수돼 321건이 예산을 지원받았다.
총 지원금액은 40억9천200만 원이었다. 당시 서울과
경기 문화계가 각각 203건과 53건을 지원 받았다.
예산 지원 사업 321건 중 수도권이 256건을 가져갔다.
이는 총 지원 건수의 79.7%에 해당한다.

반면 지방별 문예진흥기금 지원 건수는 미미하다.
부산 17건, 대구 8건, 강원 7건, 전북 5건, 경남 경북
광주 인천 각각 4건, 전남 충북 각각 2건에 불과했
다. 총 지원 금액도 서울 25억5천600만 원, 경기 6억
4천700만 원으로 수도권에 32억300만 원이 몰렸다.
전체 지원 금액의 78.3%를 독식했다. 부산지역 문화
예술인이 지원받은 금액 1억9천900만 원의 16배가
넘는 수치다. 강원은 2억4천800만 원, 대구 9천800
만 원, 경남 5천만 원, 전북 4천500만 원, 광주 3천
900만 원, 경북 3천500만 원, 전남 3천만 원, 충북
1천300만 원, 충남은 800만 원에 불과했다.

지역 문화계의 불만이 팽배해지자 정부는 '지방 문
화예산 비중을 40%까지 높이겠다'고 했지만, 현실
은 그렇지 못했다.

지난해 상반기 실제로 집행된 문예진흥기금 실태
를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서울이 총 461억9천만
원(63.3%), 경기 49억2천만 원(6.7%), 인천이 11억
5천만 원(1.6%)을 지원받았다. 수도권이 총 금액의
71.6%를 차지했다. 나머지를 지방이 나눠 가졌다.

부산이 26억5천만 원(3.7%), 대전 25억1천만 원(3.4%), 강원 22억3천만 원(3.1%), 경남 19억4천만 원(2.7%), 전북 15억3천만 원(2.1%), 충북 14억1천만 원(1.9%), 광주 13억 원(1.8%) 등이었다. 2009년에는 서울과 경기도 각각 총 지원금의 68.4%와 6.4%가 지원됐다. 부산은 2.9%에 불과했다.



2010년 상반기 집행된 문예진흥기금현황

2 문화예산의 수도권 편중 이유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문화예산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현실적인 문제가 작용한다. 수도권에 문화계 종사 인구가 많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산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해 내놓는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 수도권에 정치 경제가 집중되다 보니 사람이 몰리고 문화예술도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몰린다. 따라서 문화예산도 수도권에 편중된다. 지방 문화예술인은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방에서는 먹고 살 수가 없어서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 실제로 2010년 문예진흥기금 정기공모사업 신청한 건수는 서울이 1천116건인 반면 부산은 115건에 그쳤다. 이는 서울지역에 문화 인프라가 집중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도 수도권 중심으로 구성됐다. 총 14명(위원장 포함) 중 3명만이 지역을 대표한다. 위원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합의제로 예산 결산과 문화 지원 대상 결과를 확정한다. 문화예산을 배분하는 최고 조직에 지역 문화계 목소리를 전달할 위원이 30%도 안 된다.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방 문화계가 준비를 제

대로 못 했다는 뜻이다. 수도권 문화예술인은 문예진흥기금 정기공모사업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다. 공모사업 발표 수개월 전부터 관련 자료를 모으고 예산을 짜고 기획안을 준비한다. 시쳇말로 심사위원에게 먹히는 방안을 내놓는다는 말이다. 반면 지방 문화계는 그렇지 못하다. 일부를 제외하면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고시점에서야 준비를 시작한다. 해당 연도 지원사업 유형이나 정보도 파악하지 않은 채 접수하는 사례도 상당수다. 이렇다 보니 지방 문화계가 공모에서 선정될 확률이 수도권보다 떨어진다.

3 해결책은 없나

문화 수요와 공급이 중앙에 몰린다고 수도권에만 지원을 집중적으로 해야 하나? 정답은 '아니다'. 문화의 획일성과 수도권 집중 현상만 가속할 뿐이다. 지역 주민도 풍부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정당한 권리가 있다. 정부가 문화예산을 편중해서는 안 될 이유다.

사실 지방 문화를 살리는 길은 역설적이다. 문화예술이 수도권에 몰려 있지만, 예산은 오히려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적절하게 배분해야 한다. 지역에 대한 지원을 늘리면 문화계 인력이 지방으로 분산돼 다채

로운 문화가 발전할 수 있다. 지역 문화인이 주장하는 예산배분 방식은 이렇다. 문예진흥기금 공모를 지금처럼 전국 단위로 신청을 받지 말고,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눠 기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자는 것이다. 물론 지방 문화가 튼튼하게 뿌리를 내릴 때까지다. 문화예산을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누는 방식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인구 비례방식도 있고, 지역 할당제도 있다. 이는 정부가 지역 문화계와 머리를 맞대면 쉽게 해결될 일이다. 정부가 '지역문화 활성화'라는 기본 명제에만 동의하면 된다. 지역을 대표

할 수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수도 늘려야 한다. 적어도 위원의 과반수는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채워져야 한다. 그래야 예산 배분에서 지역 문화의 어려움을 전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 문화계가 뭉쳐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다소 가시적인 움직임도 있었다. 지난해 8월 광주에서 열린 한국예총 전체 회의에서 각 지역은 문예진흥기금의 지방 홀대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최근 제주도에서 열린 한국예총 6대 광역시 사무처장 모임에서도 문화예산의 수도권 편중 해결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제는 말에 그치지 말고, 실행에 옮길 때다. 특히 전략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문예진흥기금의 지역별 지원 자료를 근거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정부 관련 부처에 지방문화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을 건의해야 한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당당하게 지원을 요구해야 한다. 지역 국회의원에게 자료를 보내 지방에 대한 문화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여론을 형성하는 것도 방법이다.

지방 문화계가 제대로 된 정보도 공유해야 한다. 문예진흥기금 사업에 대한 각종 정보를 면밀하게 분석해 연초부터 작품을 구상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면 지원을 끌어 내기가 쉽다. 자생력이 부족한 지방 문화예술인이 협력해 경쟁력 있는 기획안을 만들어 지원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국립**



부산 문화예산, 놓아야 할 것과 잡아야 할 것

글 · 박태성 부산일보 논설위원



- 허우적거리는 것은
- 누구의 다리?

부산문화재단으로부터 '지역 내 문화예산 분배 방식'에 관한 글을 부탁받고는 떠오른 그림 하나가 있다. 16세기 벨기에 화가 브뤼겔의 '이카로스의 추락'이 그것이다. 당시 서민들의 풋풋한 삶을 풍자적으로 묘사한 브뤼겔의 작품들을 대하고 있노라면, 조선 시대 풍속화가 김홍도를 연상케 하는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작품 제목을 보지 않고 작품만 보고 있으면 작가가 무엇을 표현하려 했는지 상상하기 어렵다. 작품 한 모서리를 자세히 살펴봐야 물속에서 어려움에 처해 허우적거리는 누군가의 다리를 볼 수 있을 뿐이다. 그 다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신화 속에 등장하는 이카로스다. 이카로스가 추락한 천하의 대사가건이 벌어졌는데도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농부들은 태연하게 밭을 갈고 있을 뿐이다. 짐작건대, 화가가 의도하는 바는 큰 사건이 벌어져도 당사자만 힘들어 할 뿐, 세상은 무심하게 자기가 아는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듯하다.



박태성 : 현재 부산일보 논설위원으로 재직 중. 원가 짝 막힌 듯한 사회에 답답함을 느끼고 인간과 인간, 사회와 예술, 인간과 자연, 사람과 사회와의 열린 관계를 위한 '소통학'과 씨름하고 있음. 그 연장선상에서 최근 에세이집 <유쾌한 소통>을 펴냈음.



벨기에 화가 브뤼겔의 작품 '이카로스의 추락'
바닷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저 다리는 과연 누구의 다리인가?

원고 주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뜬금없이 브뤼겔 작품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을 늘어놓았다. 그 이유는 '부산에서 문화 예산 분배 소외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그림 속의 다리'는 누구일까?'하는 물음을 던지기 위해서다. 답은 이 글의 끝부분에 있다.

사실 부산문화재단으로부터 원고 청탁을 받고는 어떻게 풀어갈지가 난감했다. 예산 분배 부조화에 대한 기본 자료는 재단이 갖고 있을 터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 가면 될 것인데 글로써 이러쿵저러쿵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에 대한 물음이 꼬리를 물었다. 그렇기는 해도 재단이 이번 기획을 하게 된

'문화정책'에 대해
뚜렷한 비전과
방향 설정을
우선 정립

배경에는 잘못된 현상을 개선시키려는 공감대가 그 바탕에 형성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렵고 힘든 방향으로의 개혁을 위해서 함께 갈 친구 한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원고 청탁이 이뤄졌겠거니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글을 풀어 나가려 한다.

주어진 주제가 워낙 광범위한 분야여서 논의 중심을 좁혀 가기로 한다.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부산 문화예산, 놓아야 할 것과 잡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놓고, 무엇을 잡아야 할 것인가? **놓아야 할 것은 특정 장르, 즉 영화·영상 분야의 예산 쏠림 현상이며, 잡아야 할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 문화 활동과 생활밀착형 소규모 문화공간 예산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시와 재단이 '문화 정책'에 대해 뚜렷한 비전과 방향 설정을 우선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원칙이 서야 말썽이 생기지 않는다. 문화예산은 지나치게 특정 분야에 쏠리는 것도, 그렇다고 해서 골고루 다 똑같은 혜택을 받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 영화·영상 분야와 대형시설 ● 쏠림 현상

우선 영화·영상 분야에 대한 지나친 쏠림 현상을 우려한다. 2011년 부산시 문화예산은 부산시 총 예산 7조5천523억 원 가운데 약1천413억 원(총 예산 비중 1.87%)으로 잡혀 있다. 이 가운데 '영화·영상 분야'예산은 영상문화도시 기반시설 조성 559억 원, 영상 콘텐츠 행사 지원 92억 원, 영상 문화산업 시설 지원 및 인력 육성 67억 원, 영상문화산업 지원 16억 원을 합해 총 734억 원이다. 총 문화예산 1천413억 원 가운데 무려 51.94%에 이르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에도 별로 다르지 않아 영화·영상 분야에 총 652억 원(총 문화예산 1천248억 원 중 52.24%)을 책정했다.

'영화·영상 분야'예산은 지난 2004년 추진돼 올해 개관식을 가진 영화의전당(두레라움) 건설 1천678억 원(국비600억, 시비1천78억)을 비롯해 부산영화제 협박물관 건립('08~'14, 중구 동광동 용두산공원 내, 331억, 민자사업), 부산 문화콘텐츠컴플렉스 건립('08~'11, 해운대구, 312억 원(국비145억, 시비167억), 영상후반작업시설 시설장비 구축('05~'11, 해운대구, 312억 원(국비78억, 시비154억, 민자80억), 영상산업 복합건축물 건립('10~'13, 해운대구, 345억 원(시비208억, 민간기부137억)과 같은 영상문화도시 기반시설들에 주로 쓰여진다. (추경 예산 포함되지 않음, 2011년 부산시 문화체육관광부 주요업무 상황 보고서)

기반시설들을 잘 활용해
창조산업으로 승화
부산이 속이 팍 찬
영상문화도시로서 비약

물론 영상문화도시를 표방하는 부산시가 영화·영상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정책이 꼭 틀렸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런 기반시설들을 잘 활용해 창조산업으로 승화돼 부산이 속이 팍 찬 영상문화도시로서 비약할 수 있다면 더할 수 없이 좋은 일이다. 하지만 집중적인 투자 효과에 비해 그 성과가 과연 있는지 이제는 꼼꼼히 따져봐야 할 때다.

올해 역시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간 부산국제영화제(BIFF) 역시 단발성 영화인들의 축제에 그칠 뿐이라는 비판도 새겨들어야 한다. BIFF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낙수 효과'에 의해 다른 장르까지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부산시 주장을 받쳐 줄 변변한 통계마저 없는 실정이다. 심지어 낙후 지역에서 사는 일부 주민들은 부산에 BIFF가 열리는 사실조차도 잘 모른다.

● 관주도적 프로젝트, ● 시민들이 주체가 되고 있는가

현대 문화의 특징은 다원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분야에 쏠리면 시민들은 영화와 축제가 '문화'의 전부인 양 생각하는 인식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 또 이런 대형시설들은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공간을 채울 소프트웨어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의 운영과 관리가 더 큰 과제다. 대개 공연장 운영 예산은 건축비의 약 10~15% 정도를 확보하는 범위라야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 그럴 경우 영화의전당에서 예상되는 연간 운영 적자만 해도 40억 원을 훨씬 웃돌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올해 부산 문화계에 지원된 순수 문화 예산은 약 32억 원 가량에 불과하다. 이러니 지역문화계 안팎에서 어떻게 볼멘 목소리가 나오지 않겠는가.

관주도적인 대형 프로젝트와 축제들이 시민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해 즐기고 있는지 궁금하다. BIFF와 같은 대형 행사들을 들여다보면 주인이 돼야 할 지역예술인들은 소외당하며 외부인들의 한바탕 잔치로 끝난다는 게 지역예술인들의 푸념이다. 시민들은 어떤가. 무언가 대단한 문화행사들이 부산에서 치러지고 있는 듯한데, 그래서 문화시민으로서 긍지를 가지라고 하는데, 정작 시민들의 실제적 삶과는 연관이 없는 듯하다.

문화는 피약별의 나무 그늘



문화는 피약별의 나무 그늘과도 같다. 시민들은 그들이 가
능하면 자기 가까이 있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물을 주고 가
꾸기를 원한다. 그들의 시원함을 느낀다면 스스로 기꺼이 나
무 한 그루를 심으려고 한다. 최근 들어 시민들의 다양한 문
화적 활동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도 그래서 새로운 게 아니다.
대형 프로젝트와 축제들이 시민들에게 시원한 그늘막이 돼
주지 못하고, 오르지 못할 먼 산 너머에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 대형문화시설에 올인 ● 생활 밀접 문화시설엔 푸대접

대형문화시설에 예산 대부분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현황을 살펴보면 영화의전당(1천678억 원), 오페라하우스(11년~18년, 1천500석 공연장, 5천억 원 예상), 제2백스코(2만㎡ 전시장, 4천석 강당, 1천19억 원, 2012년 완공 예정), 부산국립극장(11~15년, 복합공연장, 1천715억 원, 국비 확보 추진), 제2시립미술관(08년~15년, 410억 원), UN평화기념관(10년~13년, 전시관람, 292억 원), 부산문화회관 리모델링(대극장 115억 원), 부산예술회관 건립과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2011년 부산시 문화체육관광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대형문화시설에 '올인' 하고 있는 사이, 생활과 밀접한 문화시설은 푸대접받고 있다는 의미 있는 통계가 있다. 2010년도 기준 전국 공공도서관의 인구 1백만 명 당 시설수를 살펴보면, 제주가 36.76개소로 가장 많고, 부산이 8.41개소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물관 역시 제주가 89.28개소로 가장 많고, 부산이 3.36개소로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술관도 마찬가지다. 제주가 22.76개소로 가장 많고, 부산은 1.12개소로 아주 낮게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10년도 문화시설 총람)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것은 문화공간의 차원에서조차 요긴한 말이다. 대중들은 과거의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직접 참여하는 활동으로 바뀌고 있다. 그런데도 시민들의 문화활동들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대규모 시설물 위주로 건립한다. 이는 부산시 시정 과제인 '일상 속 문화 향유기회 확대'와도 큰 거리감이 있다. 이런 대형시설들을 자꾸 짓는 것은 문화를 실내에 감금하는 행위이며, 대중들을 거기에서 가르치려는 우월적 행위에 다름 아니다. 전 시정 행정의 대표적인 경우다.

생활과 밀접한 공간

문화에 접할

機會

대형 시설 하나를 덩그러니 세우는 것 보다 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문화에 접할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런 공간에서는 보는 사람이 만드는 사람도 되고, 만드는 사람이 보는 사람도 될 수 있다. 그마저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출판과 관련된 정책과 지원은 전무하다.

- 시민 문화활동과
- 작은 공간 지원해야

이상은 문화예산에서 놓아야 할 것(줄여야 하거나 삭감해야 할 것)에 대해서 언급했다. 잡아야 할 것은 자생적 시민문화 활동과 소규모 문화공간들이다. 재단의 '2011년 지역 문화육성지원사업 현황'에 따르면, 총 32억4천만여 원의 지원금 가운데 시민예술 활동에 지원한 금액은 고작 5천만 원에 불과하다. 아직까지도 재단이 예술인들 지원 사업에 매달려 있지, 시민을 위한 문화정책 수립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뜻이다.

어쩌면 재단이 해야 할 일 가운데 가장 중심에 서 있어야 할 분야가 시민 문화 활동 지원 업무 아닌가. 아마추어 예술 동호인들이 재단 양식에 맞춰 지원 신청을 하면 아마추어란 이유로 아예 심사에서 쉽게 제외시키는 경우도 이따금 보았다. 이래서는 시민들과 함께 하는 재단이 될 수 없다. 재단은 기다리지 말고 현장에 찾아 가서 가능성 있는 단체들을 발굴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데 아낌이 없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이 스스로 나무 그늘을 만들어 가는 본받을만한 사례 한 가지를 소개한다. 일본 도쿄에는 지난 1985년에 결성된 '스미다 <제9번 합창>을 부르는 모임'이 있다. 도쿄 '스미다 강' 동쪽 지역은 변변한 연주홀 조차도 없었던 문화 소외지역이었다. 여기에 료고쿠 국기관이 건립된 것을 계기로 스미다구 주민들이 함께 모였다.

연주가 있는 날에는 5천여 명의 출연 주민들이 가까운 사람 한 두 사람씩을 데려와 꼭 찬 공연장에서 감동의 무대를 올린다. 무대와 객석 사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는 요정가 게이샤들까지 참가한다. 문화 운동가들이 깊

숙이 참여해 출연자들을 개별적으로 가르친다고 한다. 음대 학생들은 독일어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가사를 외우는 방법까지 발명했다. 예를 들면 독일어를 일본식 발음으로 바꿔 '남자친구인 켄과 호텔에서 만났더니 덩달아 회사 이사까지 만났다'라는 식이다. 더 이상 수동적인 청중이 아니라, 직접 문화를 창조하는 행위가 이처럼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워 준 사례다.

스미다 구청은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집요하고 성실하게 시민의 일상 속으로 파고 들어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현장에서 해주었을 뿐 일절 간여하지 않았다. 주민 밀착형 행정이 이뤄낸 결실이어서 부산시와 재단은 꼭 참고할 만하다. 대중들이 스스로 예술을 창조하는 시대를 맞아 정책적 전향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최근 재단에서 지원 시스템의 혁신을 포함해서 잇따른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반갑다. 하지만 아직도 우려스러운 것은 관료적 행정에 급진적으로 반대편에 있어야 할 재단이 관료주의적 서류 행정에 적응해가며 오히려 거기에 젖어들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관료주의 특징은 탁상에서 원근법의 잣대로, 사물과 일정한 거리를 둔다는 데 있다.

이는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직접성과의 결별을 의미한다.

관행적으로 접수되는 지원 신청에 대해서 공정하게 심사해서 배분하는 것도 필요한 일일 게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사안들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재단이 소신 있게 기획 공모를 하는 획기적인 지원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네 구석구석에서 뜻하지 않게 문화와 마주치며 그 소중함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작은 도서관, 소극장, 문화카페와 같은 소규모 공간들에 대한 지원 역시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카로스의 추락'에서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다리는 다름 아닌 시민들이다. 그 옆에서 관심 없다는 듯 태연하게 밭을 가는 농부들은 부산시와 재단 아닐까. 부산시와 재단은 물속으로 직접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시민들을 구해내야 한다. 서로 머리를 맞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전시성 대형 프로젝트보다는 아래에서 자발적으로 움트는 씨앗들에 단물을 흠뻑 뿌려줘야 할 것이다. 한글

좌담

“부산의 문화예산 무엇이 문제인가”

일 시 : 2011년 11월 30일 수요일

장 소 : 재단 4층 회의실

사회자 : 배재정(부산문화재단 기획홍보팀장)

좌담자 : 김경화(부산예총 사무처장), 배인석(부산 민예총 미디어기획위원장),

신숙희(부산시의원), 이재희(경성대 경제금융물류학 교수) (가나다 순)



사회자 오늘의 자리는 재단이 발행하는 문화예술비평잡지 '공감 그리고' 겨울호의 커버스토리와 관련한 좌담회 자리입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리 알려드린 대로, 이번 커버스토리의 주제는 '부산의 문화예산 무엇이 문제인가'입니다. 커버스토리 원고를 보내드렸으니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버스토리에서는 우선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부산과 서울, 부산 내에서의 불균형적인 문화예산 편중 문제, 부산의 문화예술지원 정책 등이 다뤄졌습니다. 현재 부산의 문화예산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경화 커버스토리를 모두 읽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감이 갔습니다. 영화·영상분야에만 예산이 치중되고, 기초예술 분야에는 지원이 잘 되지 않는, 너무나 극단적인 예산배분 현실에 관해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부산시의 직접 지원과 문화재단의 지원이 이원화되어 있는 등 일관되지 못한 부분도 보입니다. 부산시의 직접 지원이 '로비'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점은 없는지 제대로 짚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구모룡 교수의 글 중에 '기존의 관습과 타성을 좇을 때 새로운 창작활동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예술단체, 협회의 역할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숙희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사업을 재단으로 이양해야 된다는 점, 문예진흥기금이 수도권과 지방에 효율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는 점, 시민문화 활동과 작은 공간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 등 전반적인 문제 제기를 잘 읽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에 대해 고민해봤습니다.

재단이 만들어진 이상 시와 재단으로 이원화된 예산지원 체계는 재단으로 일원화 돼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는 문화시설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많은 예산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011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 예산의 22.4%가 문화 산업 기반시설을 마련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3천416억8천900만 원 가운데 문화예술에 554억2천400만 원, 영상문화산업에 767억7천900만 원, 관광진흥에 116억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예산의 배분 형태만 보더라도 부산의 문화정책 방향은 지역문화의 뿌리를 찾고 그것을 발전시키려는 것보다도 영화제를 통한 영화·영상 문화산업 육성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영화·영상 분야의 인프라 건설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으니 아마도 2015년쯤부터는 정상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을 검토하다 보니, 아쉬운 점이 참 많았습니다. 2009년도 기준으로 전통문화에 대한 예산이 16개 시도에서 꼴찌입니다. 중앙의 기금을 부산으로 가져오려면 '이슈'가 되는 활동을 다양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산문화재단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배인석 저는 문화예술단체나 예술가들이 부산의 문화예산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좀 더 초점을 맞춰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앙기금의 경우, 중앙정부를 상대로 예산을 더 확보해 와야 합니다. 시의 예산 분배에 대해서도 지역 예술가나 문화예술단체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영화·영상산업 분야의 예산 편중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희 부산은 시설 건립에 예산 지원이 편중되어 있고, 문화 활동을 위한 예산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도 특정 분야 쪽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적은 예산 안에서 한 쪽으로 과다하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 다른 쪽 분야가 죽어나는 겁니다. 축제나 행사가 많은 것 또한 문제입니다. 예술인에게 예산이 적게 지원되고 시설 건립이나 축제, 행사 등에 많은 예산이 과다하게 지원되는 것이 타당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회자 문화재단의 입장에서 특정 분야를 지목해서 논의하는 게 조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커버스토리에서도 지적되고 있고 좌담에 참석하신 분들께서도 계속 지적하고 계시니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 문화예산의 크기를 키우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전제 하에서 영화·영상도시 부산의 문화정책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재희 영화·영상 산업이 사실은 부산에서는 외지 사업입니다. 자생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

고, 축제인 영화제를 통해서 산업화된 것이지요. 특히 예술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예술인들이 접근하기 힘든 구조이고 앞으로도 개선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미 십수년동안 투자가 계속 돼 왔고 시민들도 부산을 ‘영화·영상도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부산시의 정책 방향을 아예 바꾸자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겨 놓친 부분들에 관해 얘기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부산시가 영화·영상산업을 강조하는 이유가 ‘다른 예술보다 부가가치가 더 크다’라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영화·영상산업은 부가가치가 큰 산업은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도 그 투자효과는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정도의 규모를 향만이나 금융, 물류에 투자한다면 훨씬 더 많은 고용과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부산이 왜 영화·영상 분야에 투자했나, 그것은 경제적 가치 측면보다는 문화적인 가치, 정서적인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다른 문화예술 분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예술이 진흥되면 시민들의 문화 복지가 증진되는, 정서적·문화적 가치가 분명히 생겨납니다. 따라서 이 같은 불균형은 교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배인석 이 같은 부분에 대해 예술인들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상산업에 관한 타당성을 따져 볼 때인 것 같습니다. 예충, 민예충 가릴 것 없이 힘을 합해 부산 문화의 공과를 점검하고 부산 내에서의 예산배분 문제도 논의해야 합니다.

자기조직의 이권을 객관적으로 실현했으면 하는데, 이는 협력과 경쟁에 대한 보편적인 룰을 시민의 입장에서 찾아나가는 상호 노력과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김경화 그렇습니다. 부산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예술단체, 협회들도 함께 논의하고 목소리를 내는 그런 방안들이 논의돼야 합니다.

신숙희 부산시의회에서도 예산의 적절한 배분과 쓰임새에 대해 많은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곳에 투여되는 예산이 너무나 많습니다.



김경화 실제로 문화기반시설 건립이 2015년쯤에는 마무리된다고 하셨지만 시설이 완공된다고 해서 돈이 안 드는 게 아닙니다. 운영하고 유지보수하려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겁니다.

이재희 그 부분이 걱정입니다. 시설 투자에만 힘을 기울이다보니, 시설 건립 후 운영에 뒷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화의전당도 마찬가지이고 제2미술관 건립을 준비하고 있지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지어놓은 후 운영을 걱정하다 보니, 이미 만들어놓은 시설과 맞지도 않고 운영비가 한해에만 한 곳 당 수십억 이상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문화시설을 건립할 때 사전평가제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시설 건립에 돈을 쏟아 붓고, 운영에도 계속 돈이 들어가다 보면 결국 문화예술 활동을 직접 지원할 예산은 갈수록 위축되고 맙니다.

배인석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반시설을 짓는 것이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그 기반시설을 채울 소프트웨어적인 고민 없이 만든다는 게 문제입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용을 확보한다면 해볼 만한 일일 것입니다.

신숙희 네, 동의합니다. 지역문화예술에 소프트 파워가 필요하다는 점을 정확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하드웨어에 집중되는 투자를 줄이고 적은 예산으로도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재희 외국의 경우, 아비뇽 축제나 에딘버러 축제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축제들은 극장이 몇 개 없는데도 잘 운영됩니다. 에딘버러 축제를 보면 극장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은 극히 일부이고, 나머지는 전부 거리에서 치러집니다. 아비뇽 축제의 경우, ‘OFF’라고 해서 문화예술인들이 온갖 공간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거든요. 굳이 큰 건물을 지어서 평소에는 운영할 수도 없이 만들어 놓는 이러한 정책들은 요즘 시대와 맞지 않습니다. 지금은 건물을 지어서 오라는 추세가 아닙니다. 찾아가는 공연, 찾아가는 전시, 이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 짓는 것을 보고 문화예술 투자라고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저는 시대와 안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영화·영상산업에 치우친 예산투자에 대한 점검 필요성, 시설 건립에 앞선 운영 방안 수립 필요성 등에 대해서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화제를 돌려, 부산의 축제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불꽃축제, G-Star 등 부산시가 3대 축제라고 일컫는 축제를 비롯해 각 구군 마다 단체마다 많은 축제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어떠한 방향으로 예산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지 말씀을 주십시오.



신숙희 축제의 문제점도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축제는 일단 시작하면 해마다 예산이 늘어납니다. 규모도 커집니다. 그러다보니 예산 배분의 불균형이 초래됩니다.

김경화 저는 축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부산 불꽃축제의 경우 올해 9일간 진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잠시라도 황홀한 순간을 안겨주자’는 목적으로 시작된 불꽃축제가 9일로 늘어나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늘어나고 행사의 질은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신숙희 전체적으로 요즘 각 지역마다 불꽃축제 안하는 곳이 없습니다. 각 시도마다 붐입니다. 불꽃축제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기간과 예산을 줄여야 합니다. 반면, G-STAR의 경우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화 과연 이러한 축제나 행사들이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영화제도 그렇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기업, 사람, 예술가 등과는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용제, 연극제, 음악제 등 많은 축제가 과연 지역에 공헌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축제마다 가수를 불러 노래 부르고 끝내는 식은 문제가 큼니다. 그런 예산을 줄여서 시민들을 위해 써야 합니다.

사회자 축제가 가진 기능은 여러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축제로 인한 파생효과에 의미를 둘지, 그 순간의 일탈과 즐거움에 의미를 둘지,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참여나 지역 예술인들의 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인석 서울의 대중예술을 부산에서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의미가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도나도 외부에서 끌어오는 식이 되면 지역의 문화가 잠식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든 지역의 토박이 문화와 인력들을 장기적이고 끈질지게 투자해나가는 정책의 마련위에 외부의 문화를 소개 시켜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희 사실 축제의 예산규모가 문화시설 건립과 비교하면 그리 크지 않을 것입니다만, 우리가 축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가가 잘 이루어지면 조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러한 시스템이 마련돼야 합니다. 연례적으로 지속하는 축제는 타성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자 실제로 저희 부산문화재단 비전 2020 회의에서도 부산의 축제와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이 교수님의 말씀대로 부산 전체 축제에 대한 평가 영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산의 각종 축제를 검토하고, 지역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을 문화적인 측면에서 평가해야 할 시점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재희 저는 부산 국제록페스티벌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록페스티벌과 비교해 보면 관주도냐, 민간주도냐에 따라서 발전하는 방식이 너무나 다릅니다. 축제를 관에서 주관해서 진행하는 것은 바꾸어야 합니다.



신숙희 축제의 또 다른 문제점은 지역 안배가 안되어 있다는 겁니다. 해운대에서 진행되는 축제가 많습니다. 강서나 북부, 사하구 등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오기 힘들습니다. 똑같은 세금을 내는데 특정지역에서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한 불평이 많습니다. 찾아가는 문화를 만들자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을숙도에 제2미술관을 짓기로 한 것도 이러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재희 지역 안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술 하는 사람들이 그 미술관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화시설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인력이지요. 지역 예술가들이 중앙으로 너무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예술인들이 이곳에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아줘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예산 쪽에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들은 더 빨리 지역을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손해는 시민들에게 오게 됩니다. 품격 있는 문화예술 도시로 만들고자 한다면 절대로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 안 됩니다.

사회자 사실은 이 같은 측면에서 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술가와 시민을 연결하고 엮여가는 매개자로서의 역할이 재단의 중요한 몫입니다. 이러한 문화 현실 속에서 부산문화재단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 같이 얘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현재 부산시와 재단의 문화예술 지원이 이원적으로 나누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경화 저는 민간경상보조금을 문화재단에 일원화하는 방식은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재단이 권력화 되어서는 안됩니다. 문화재단의 정체성은 지원기구여야 합니다.

신숙희 문화재단을 만들 때 모든 문화인들이 재단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부산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배분한다면 재단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재희 사실, 정치권력이 직접 문화예산을 배분하는 것은 문화예산 배분 원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배인석 그렇다면 부산문화재단에 예산 배분권을 일임할 수 있을 만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단이 문화권력으로 군림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당위로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재단도 스스로 권력조직이 안 될 수 있는 구조와 시스템적인 것들을 모두에게 설득력 있게 마련해야 합니다.



이재희 문화재단은 부산의 문화예술에 대한 어떠한 목표와 정책이나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충족돼야지 시도 설득 하고, 문화예술인 또한 설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치권에 변동이 생기면 문화정책도 바뀔 정도로 문화예술계가 취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정책은 연속성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진행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단이 비전과 정책을 제대로 마련해야 합니다.

사회자 신뢰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재단에서도 올해 부산문화재단의 '비전 2020'을 준비하는 한편 문예진흥기금의 투명한 배분 및 심의를 위해 지원심의시스템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소통을 통해 시민과 예술가들을 설득하고, 시민과 예술가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부산 전체의 문화예술의 방향을 끌고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숙희 부산의 문화예술 관련 예산을 제대로 책정하고, 모두에 논의한 것처럼, 중앙의 기금을 좀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산의 문화예술단체 등 예술인들이 힘을 합해야 한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예술단체가 해당 단체의 입장, 이익만 생각하면 부산의 문화예술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 예총, 민예총 관계자들도 자리하셨으니 한 번 더 부탁말씀을 드려 봅니다.

사회자 오늘 부산의 문화예산에 대한 좌담회를 통해 다양한 좋은 말씀들을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시의 문화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고 기존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어 한순간에 예산 배분의 큰 줄기를 변화시킬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제안된 여러 의견들에서처럼, 재단은 투명한 지원금 배분 등을 통해 신뢰를 얻고 예술가와 예술단체들이 목소리를 한데 모아 대응한다면 조금씩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 그리고'의 커버스토리와 좌담이 그 첫발걸음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장리

Criticism & Review

HOT REVIEW_ 부산국제영화제

CLOSE CRITICISM_ 지역문화 뒤집어 보기

‘Criticism & Review’는 부산문화예술 각 장르의 현상을 비평 분석하는 공간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토론과 논의의 장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생각들이 스스로없이 대화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36. 새로운 원년을 맞이한 부산국제영화제, 그 진단과 전망

42. 영화의전당, 수영강변의 시각적 장관

HOT REVIEW 부산국제영화제

새로운 원년을 맞이한 부산국제영화제, 그 진단과 전망

글 · 주유신 영산대학교 영화영상학과 교수
사진 ·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 ‘세계 최고의 비경쟁 영화제’라는 명성과 지위를 확고히 해가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는 향후 영화산업의 ‘적극적’참여자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 ‘전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젊은 영화제’, ‘가장 환대받는 영화제’. 올해로 제16회를 맞은 부산국제영화제(이하 비프)를 수식하는 수많은 말들 중의 몇 가지이다. 비프의 눈부신 발전과 성공의 족적은 제1회 22억 원의 예산과 169편의 상영작이 제16회에는 116억 원과 307편으로 증가했다는 통계적 사실 뿐만 아니라, 제3회부터 시작된 PPP(Pusan Promotion Plan)와 제11회부터 시작된 AFM(Asian Film Market)을 통해 아시아 영화의 제작과 배급 분야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AFA(Asian Film Academy)를 통해 아시아 영화 인력 양성에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읽어볼 수 있다.

비프의 이러한 성공은 지역축제의 의미를 넘어 국가브랜드이자 부산의 랜드마크적 이벤트로서 비프의 위상을 확고하게 했다. 그 결과 비프는 부산으로 하여금 ‘영화도시’의 이미지와 ‘아시아영상중심도시’라는 비전을 갖게 해주었으며, 최근에는 이를 토대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꿈꿀 수 있게 해주었다.

하지만 비프의 이런 성공과 기여가 말 그대로 지속가능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고 그만큼 갈 길도 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올해 비프의 운영 및 사업의 몇몇 측면들을 검토해 본 후에 향후의 과제와 전망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영화 산업 내의 적극적인 주체로 떠오르다

우선 무엇보다 올해 비프가 맞은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영화의전당' 시대의 개막일 것이다. 무려 1천6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지어진 영화의전당을 전용관으로 갖게 된 비프가 상영관의 집적을 통해 영화제의 안정적인 개최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면 영화의전당 자체는 한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적 건물로서 지역 문화 활성화는 물론이고 영화제와 관광산업의 연계 그리고 부산영상산업의 지원과 육성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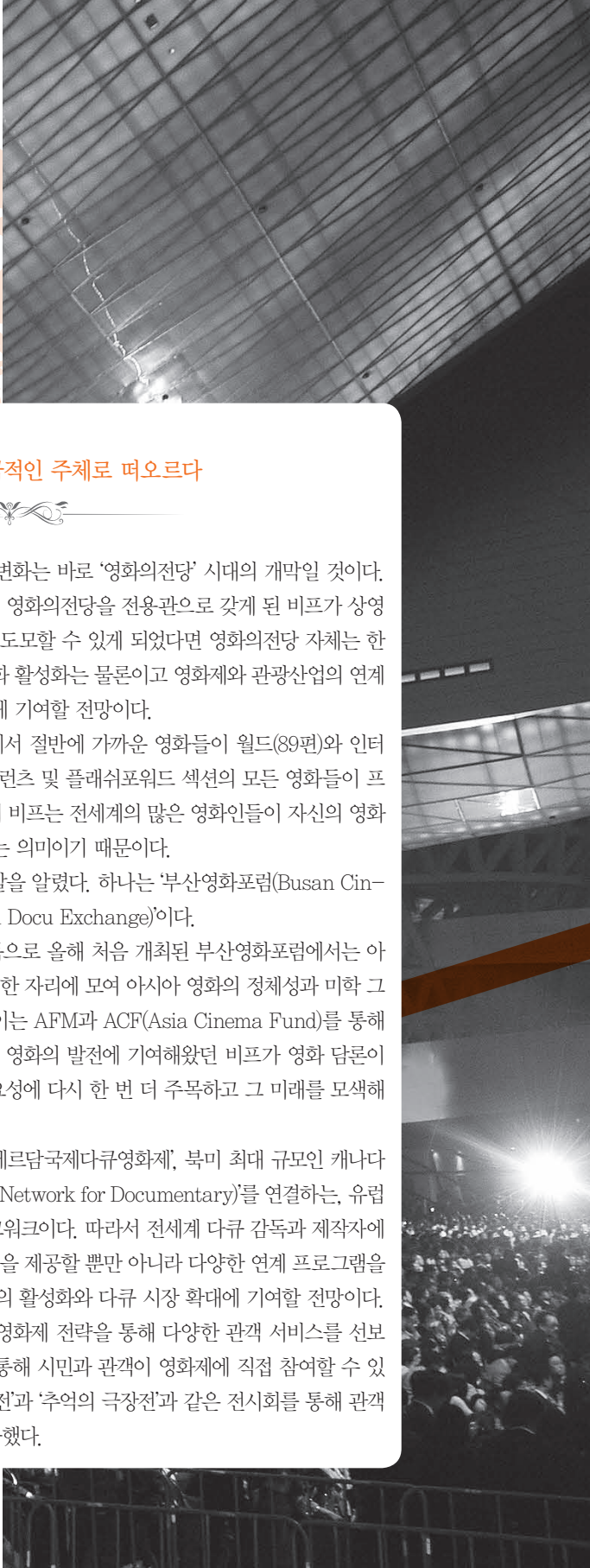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307편의 상영작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영화들이 월드(89편)와 인터내셔널(46편) 프리미어라는 사실 그리고 뉴커런츠 및 플래쉬포워드 섹션의 모든 영화들이 프리미어 영화라는 사실은 놀라움을 준다. 이제 비프는 전세계의 많은 영화인들이 자신의 영화를 '최초로' 상영하고 싶어 하는 장이 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또한 비프는 올해 두 가지의 의미 있는 출발을 알렸다. 하나는 '부산영화포럼(Busan Cinema Forum)'이고 다른 하나는 'WDE(World Docu Exchange)'이다.

'21세기 아시아영화의 길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올해 처음 개최된 부산영화포럼에서는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의 석학과 연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아시아 영화의 정체성과 미학 그리고 산업의 역사 등을 진단하고 토론했다. 이는 AFM과 ACF(Asia Cinema Fund)를 통해 산업적으로, AFA를 통해 교육적으로 아시아 영화의 발전에 기여해왔던 비프가 영화 담론이라는 또 다른 영역을 통해 아시아 영화의 중요성에 다시 한 번 더 주목하고 그 미래를 모색해 보고자 하는 야심찬 시도라고 할 수 있다.

'WDE'는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있는 '암스테르담국제다큐영화제', 북미 최대 규모인 캐나다의 'HOT DOCS' 그리고 비프의 'AND(Asian Network for Documentary)'를 연결하는, 유럽과 미대륙 그리고 아시아 대륙 간의 다큐 네트워크이다. 따라서 전세계 다큐 감독과 제작자에게 최신의 시장 정보와 작품을 홍보할 플랫폼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함으로써 향후 다큐 국제공동제작의 활성화와 다큐 시장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올해 비프는 시민과 함께 하는 영화제 전략을 통해 다양한 관객 서비스를 선보였다. '시민 평론단'이나 '시네필 어워드' 등을 통해 시민과 관객이 영화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대폭 확대했고, '이자벨 위페르 사진전'과 '추억의 극장전'과 같은 전시회를 통해 관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와 문화적 체험을 제공했다.



BCF

Busan Cinema Forum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 2층 그랜드볼룸 Haeundae Grand Hotel 2nd floor Grand Ballroom

2011.10.10 > 11

아시아 영상산업의 미래를 위하여

이상이 올해 비프가 맞이한 몇 가지 변화라면, 상영, 마켓, 제작지원 분야에서 비프는 여전히 역동적인 움직임을 통해 아시아 영화의 구심축이자 발전의 추동체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AFM은 전년에 비해 참가자는 24%, 부스는 67%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장소를 백스코로 옮겨 좀 더 체계적, 집중적인 행사 운영이 가능해졌다. 칸영화제의 칸 필름마켓, 베를린영화제의 유럽필름마켓과 같은 서구의 시장이 여전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FM과 같은 지역영화시장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낸다는 점에서 지역은 물론이고 세계 영화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갖게 될 전망이다.

비프는 2003년에 아시아의 독립다큐멘터리를 제작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AND Fund를 2007년에 장편극영화 인큐베이팅펀드와 후반작업지원펀드를 포함한 ACF로 확대하여 아시아의 재능 있는 감독들을 지원해왔다. 2010년까지 ACF를 통해서 지원받은 52편의 극영화와 82편의 다큐멘터리들은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 초청되거나 수상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영화제는 상영의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는 영화들이 대중과 만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대안적인 배급 시스템이 될 수 있다. 현재 비프가 추진 중인 ACP(Asian Cinema Portal)는 아시아 영화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아시아 영화 전문 인터넷 사이트로서, 이런 정보의 교류를 통해 아시아 영화들은 물론이고 배우들의 프로모션과 에이전시 기능까지 하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세계 최고의 아시아 영화 아카이브 지향



마지막으로 비프의 지원과 협력 하에 '시네마테크 부산'이 2007년부터 추진 중인 '부산아시아필름아카이브' 사업 역시 많은 기대를 불러일으킨다. 이는 비프에서 상영된 아시아 영화들에 대한 DVD 자료화 작업과 더불어 매년 70편 내외의 보존 가치가 높은 아시아 영화의 필름 및 기타 촬영본을 수집, 보관하는 사업으로서, 아시아 영화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체계적인 정보 제공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제 비프는 영화 산업과의 관계를 다변화, 심화시켜감으로써 한국 영화 산업에 대한 '간접적' 기여를 서서히 가시화시켜가고 있으며, 올해 드디어 영화의 기획, 제작, 배급, 상영 그리고 교육과 담론에 이르는 '영화 생태계 구축'을 이루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비프에게 남겨진 중요한 과제는 한편으로는 글로벌화와 컨버전스를 비롯한 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변화 그리고 전문적, 지역적 콘텐츠의 전세계적 보급의 확대라는 흐름에 어떻게 대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명실공히 아시아 영화가 만나고 교류하는 '허브'에서부터 아시아 영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동하고 책임지는 '심장'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라고 할 수 있다.

한 아시아 영화가 제공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비프의 미래를 상상해보는 것으로 그 대답을 대신해 보고자 한다.



올해 비프에서 상영되었던 필리핀 영화 <하수조에 빠진 여배우>(마를론 리베라)는 해외(특히 유럽) 영화제들에서 주목받거나 수상하기 위해 바로 그 영화제들의 취향과 눈높이에 맞춰 자국의 현실을 착취적으로 사용하고 또 부당하게 왜곡하는 독립영화 감독과 제작자의 모습을 그려낸다. 이는 한편으로는 제1세계와 제3세계 간의 위계적 권력 관계가 어떻게 영화를 비롯한 재현의 영역에서도 반복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의 영화제 서킷(circuit)이 어떻게 한 지역의 영화 현실과 그 상상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날카롭게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이 영화가 보여주는 문제의식은 비프의 미래에 대한 날카로운 면서도 유의미한 우화가 아닐까 싶다.

'아시아 최고', '세계 비경쟁 영화제 최고'의 자리를 자랑하고 지향하는 비프가 아시아의 맹주로서 또 하나의 작은 '제국'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영화적 상상력과 창조적 영화제 서킷의 진정한 '허브'가 될 것인가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될 비프의 노력과 전략에 달려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주유신}

주유신 ● 서울대 미학과와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영상예술학 박사) 졸업. 현재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자문위원, 부산시 영화영상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 (사)부산영상포럼 공동회장. 부산의 '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 가입 신청 작업에의 참여를 계기로 '창조적 영화도시 부산'에 대한 고민 중.

HOT REVIEW_ 영화의전당, 건축적 관점에서의 비평

수영강변의 시각적 장관

글·강혁 경성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사진·영화의전당

BUSAN
CINEMA CENTER

영화의전당은 건축을 매개로 영화적 속성을 공간으로 번역해 구현하고 있다. 중력에 저항하면서 공중에 떠있는 거대한 지붕과 스크린이고자 하는 천정의 표면이 그 좋은 예이다.

부산국제영화제의 전용관으로 세워진 영화의전당은 건축과 영화의 행복한 만남이라고 불러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영화예술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가 일상을 떠난 환상성, 현실을 넘어서 꿈의 세계를 펼쳐 보이는 것이라면, 영화의전당이아말로 영화의 매체적 특성을 건축적으로 번역하여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전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영화의전당은 분명 현실 속의 대상(Objet)으로 존재하지만 동시에 수영강변에 피어난 거대한 신기루처럼 보인다. 영화의전당은 일반인들의 건축에 대한 통념을 보기 좋게 배신하면서 건축으로 가능한 인공적 세계의 창조가 어떠한 것일 수 있는 지 보여주었다. 보통의 건축들과 전혀 다른 그것의 특이하고 드라마틱한 형태는 영화도시 부산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손색이 없다.

장구한 예술의 역사에서도 가장 오래된 장르의 하나인 건축은 부동성, 지속성, 견고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건축은 거의 항상 존재의 무게움을 반영하는 예술이었다. 반면에 탄생된 지 백년이 조금 지난, 어린 예술인 영화는 순간성, 표층성, 운동 이미지로 해서 건축과는 대척점에 있다. 그런데 영화의전당은 건축을 매개로 이런 영화적 속성을 수용하고자 한다. 중력에 저항하면서 공중에 떠있는 거대한 지붕과 스스로 스크린이고자 하는 천정의 표면이 그 좋은 증거이다.

거기에 리드 조명 같은 영상 매체를 도입하여 건축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한다. 영상의 시대에 걸맞게 영화가 지닌 가벼움을 도입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불변의 사물이기 대신에 변화무쌍한 이미지로 존재하려는 영화의전당은 단기간에 건설된 센텀시티의 초현실적인 도시 풍경을 배경삼아 가상의 공간을 구현하는 듯 보이기도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전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영화의전당의 디자인은 예술 영화의 실험 정신이나 디지털 시대의 탈현대적 트렌드와도 잘 맞아 떨어진다. 그렇다고 영화의전당이 프로그램이나 기능, 동선 등을 도외시한 채 형태나 시각 이미지 위주로 설계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섬세하고 독창적인 해법으로 다양한 경우에 적응 가능한 유용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방식의 활용이 가능한 광장

더불어 주목해야 할 것으로 영화의전당이 만들고 있는 축제적인 장소의 창출이 있다. 세계적인 영화제로 자리 잡은 부산영화제의 개막과 폐막식 및 영화 상연은 수영만 요트 경기장의 야외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바닷가의 열린 공간이 전 세계의 영화인과 시네필이 한 자리에 모여 영화를 놓고 소통하며 정서를 공유하는 독특한 무대로 변신했다. 이것이 다른 우수한 국제영화제와의 차별점이며 많은 해외 영화인에게 부산국제영화제가 깊은 인상을 준 이유이다.

부산영화제의 새로운 상영관으로 마련된 영화의전당은 물론 대형의 실내 영상관을 구비하고 있지만 외부의 축제적인 오픈 스페이스의 창출에 더 큰 방점을 둔다. 거대한 덮개를 구성하는 지붕은 시각적 경이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 전에 이러한 공동의 장소를 만들기 위한 장치로 보는 게 더 옳을 것이다. 더블 콘이라 불리는 원통형의 거대한 수직 구조체나 공중을 가로지르는 브리지 역시 이러한 기능에 봉사하기 위한 것이다.





영화의전당의 외부 공간은 인접한 강변 공원과 강가로 연장되고 있다. 이들 열린 공간은 영화제가 소수 영화인들의 축제가 아니라 전 부산 시민, 나아가 한국인과 아시아인들이 함께 하는 축제가 되게 할 토대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문화적 성격의 너른 광장을 구축한 것이 영화의전당의 큰 장점이다. 아마도 횡수를 거듭할수록 이 장소의 진가가 드러날 것이다.

또 하나 언급해야 할 점은 영화의전당의 건립이 영화도시 부산의 도시 풍경을 연출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영 강변을 따라서 영화 관련 시설들이 늘어지면서 영상 벨트가 형성되고 영화도시 부산을 표상하는 실제적 경관이 생겨났다. 영화의전당은 단조로운 사각의 고층 건물들이 늘어진 수직 도시 센텀에 수평선을 개입시키며 독특한 도시적 개성을 지닌 장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것의 곡선 지붕은 배후의 장산과 겹치면서 시각적으로 특이한 스카이라인을 그린다. 한편으론 부산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는 해운대의 도시 이미지 형성에도 결정적으로

일조한다. 이런 측면에서 영화의전당을 개별 건축으로 뿐 아니라 도시 맥락적으로도 읽어야 할 필요가 있다.

부산의 자랑스러운 문화 자원 되길



마지막으로 영화의전당이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새로운 형식의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리라는 기대를 피력하고 싶다. 공식적으로는 국제영화제 기간 동안의 홈 베이스이자 주 상영관으로 기능하겠지만 영화의전당은 평상시에 다양한 용도와 활동을 담는 다목적 공간이다. 영화와 관련해서 시네마테크나 아카이브 등이 시설의 성격을 규정하겠지만 그 못지않게 온갖 종류의 공연과 전시, 행사, 시민 참여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출범 초기의 미숙함을 극복하고 활동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하게 되면 부산에서 가장 특색 있고 유용한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우선 너무 급하게 개관을 서두르고 제대로 시험 가동도 못하는 바람에 폐막식에서 비가 새는 등 문제를 노출했고 영화제를 위한 공간 작동이 매끄럽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공사를 서두르느라고 마감이 조잡하고 디테일이 부실해졌다는 것이다. 대대적인 보강과 문제의 최소화가 필요할 것이다. 세계 최장의 캔틸레버(내민 보) 지붕을 내세우는 데, 의미가 없지는 않았지만 무조건 자랑할 만 한 것은 아니다. 그런 사실이 건축의 질적 가치를 높여주는 것도 아니거니와 공사비를 과다하게 소모한 측면이 있고, 여름의 태풍을 막기 위한 보강을 하다 보니 초기의 날렵한 지붕의 자태가 둔탁해졌고 무거워졌다. 오히려 몇 개의 가는 기둥을 자유로운 미학적 형태로 허용했다면 건설비도 절감하면서 하늘에 부유하는 가벼운 지붕을 창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씁쓸한 것은 이러한 건축이 국제현상설계공모를 거친 세계적인 명망을 지닌 건축가의 안이었기에 실현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과연 한국의 건축가들 중에 이러한 상상력을 펼칠만한 이가 있는

것이지, 혹은 그런 건축가의 대담한 발상이라도 한국인의 것이라면 수용할 지 자문하게 된다.

여하튼 이제 부산은 남들에게 내세울만한 국제적인 축제와 거기에 합당한 공간을 갖게 되었다. 이를 어떻게 활용하여 자랑스러운 문화 자원으로 만들어 갈 지는 시민 모두의 몫인 것이다. **강혁**

강혁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과 및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미국 MIT건축대학 방문 연구원, 미국 신시내티 도시건축 대학 객원교수, 서울대, 동국대, 영남대 대학원 강사 등을 역임했다. 예술의 전당 건립본부 건립위원, 월간 이상건축 주간, 부산시 건축위원회 위원, 부산시립미술관 자문위원 등 역임했으며 저서 및 역서로 <혁명의 문화사> <공간으로서의 건축> <비움의 구축> <침묵의 공간> <교양이 경쟁력이다> 등이 있다.

Criticism & Review

CLOSE CRITICISM_ 문화예술에 담긴 사회학

‘Criticism & Review’는 부산문화예술 각 장르의 현상을 비평 분석하는 공간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토론과 논의의 장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생각들이 스스로없이 대화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50. 미술_ 현실주의 미학 혹은 휴머니즘의 공간적 확산

54. 생활문화_ 문화의 가치는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

58. 문학출판_ ‘출판’에서 ‘출판기념회’까지의 문화 표정

62. 영화_ 응시와 기다림의 미학 김영조의 다큐멘터리

66. 연극_ 부산 연극계에서 당장 필요한 것은

70. 춤_ 거리에예술창작단 <랄랄라 스트라다>의 2011년 거리 춤

74. 음악_ 임병원 독주회 ‘바이올린만의 아우라에 취하다’

CLOSE CRITICISM_ 지역문화 뒤집어보기

현실주의 미학

혹은 휴머니즘의 공간적 확산

글·이영준 큐레이터, 김해문화의전당 전시교육팀장
사진·이영준, 가나아트갤러리



이영준 ● 1966년 부산출생,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 부산대학교 예술문화와영상매체협동과정 박사과정(미학) 수료, 100여회의 전시기획 및 진행, 부산비엔날레 학술위원, 월간 코리아아트 편집장, 부산 MBC방송 <부산부산문화> 그림 읽어주는 남자 프로그램 진행, 부산시립미술관 소장품 심의위원 역임, 현재 김해문화의전당 전시교육팀장.



The Sky and the earth 162cmX130cm (100F) Oil on canvas 2010

2011년 10월 12일부터 11월 13일까지 해운대 노보텔 3층 가나아트갤러리에서는 임영선의 개인전이 열렸다. 최근 작가는 그림의 주제와 형식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서울 등 타지방에서는 두 차례 정도 개인전이 있었지만 이렇게 변화된 화풍을 부산에서 선보인 것은 2010부산비엔날레 이후 처음이다.

임영선은 현실주의 미학에 깊이 천착해온 작가다.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믿음, 사람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희망을 간직하고 있는 마음 따뜻한 작가다. 날선 논리나 차가운 이념보다는 휴머니즘에 기댄 작가의 지향점은 그래서 언제나 더 낮은 곳을 향해 있다. 인간의 꿈을 우화적으로 형상화했던 이전의 작업과는 달리 작가는 최근 동아시아 지역에서 진행된 봉사활동의 경험을 화폭에 담고 있다. 우리가 흔히 못사는 나라라고 치부해왔던 캄보디아, 티벳, 몽골에서의 경험을 통해 작가는 오히려 희망을 그린다. 모더니즘 혹은 자본의 물결이 미치지 못한 곳에서 사람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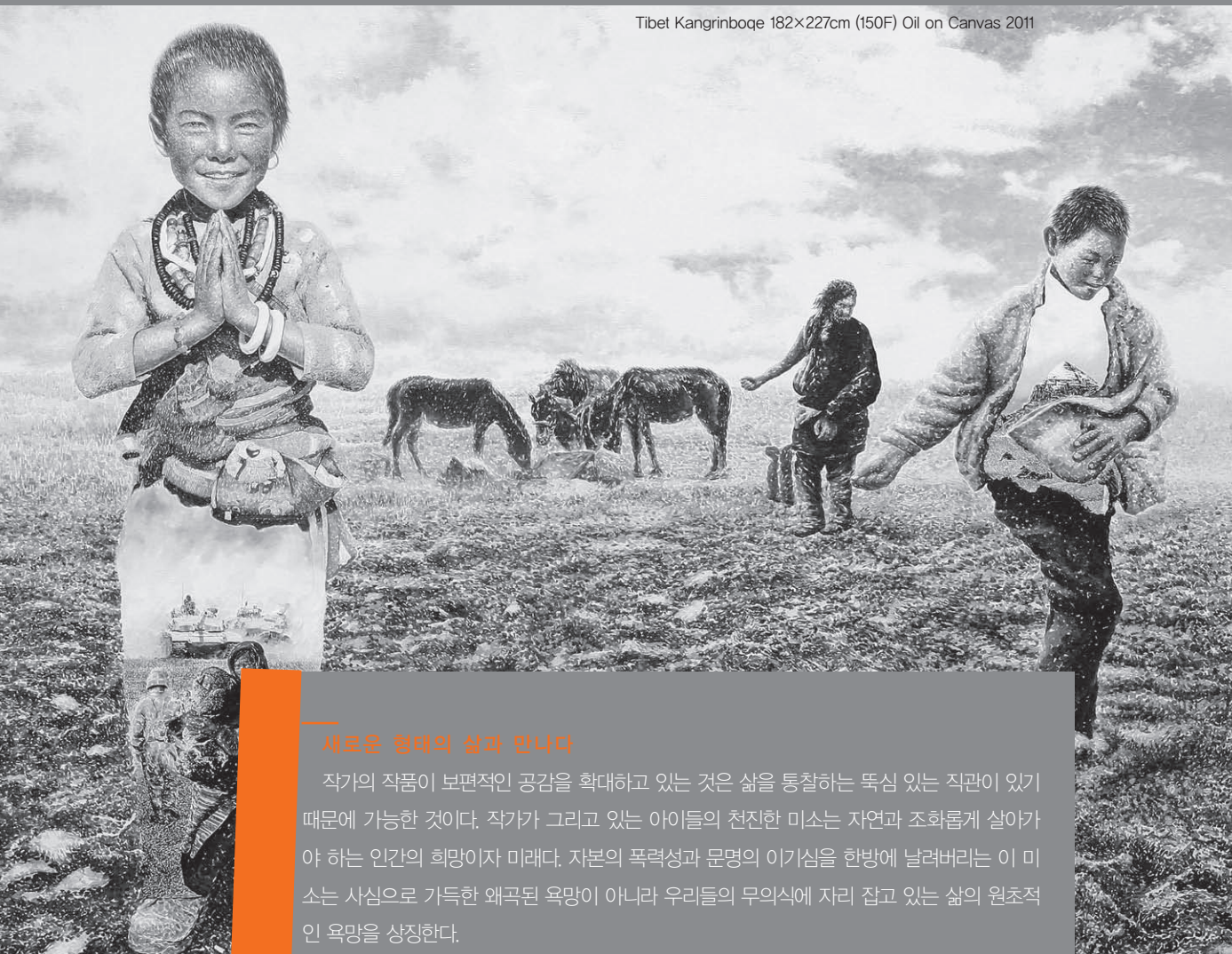
근대화의 아픈 역사 떠올리게 해

작가가 만난 아이들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다. 눈 덮인 히말라야, 먼지가 흩날리는 몽고의 사막, 활랑하기 그지없는 자갈밭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아이들의 얼굴엔 늘 미소가 가득하다. 인물과 풍경이 절묘하게 오버랩 되어 있는 작가의 작품은 사람과 자연이 평화롭게 만나는 아름다운 순간들을 상상하게 만든다. 또한 아이들의 미소는 고층빌딩이나 화려한 네온사인 에 익숙해진 우리의 감수성을 되돌아보게 만든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문명의 그릇들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را 성찰하게 한다.

대만 카요샹 미술관 전시 때문에 이번에는 출품되지 않았지만 2008년도에 제작된 작가의 작품 <The Sky and the Earth>는 개인적인 평가이지만 작가의 가장 탁월한 작품 중 하나다. 네 명의 아이가 등장하는 이 그림에는 다른 그림과는 달리 아이들이 뒷모습이 그려져 있다. 힘차게 뛰어가는 첫 번째 아이, 마치 공중에 떠있듯이 묘사된 두 번째와 세 번째 아이, 그리고 아예 그림자조차 사라진 네 번째 아이는 우리를 향해 뒤돌아보고 있다. 땅과 하늘이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지만 산업쓰레기를 들고 어디론가 달려가는 모습은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리고 순진한 표정으로 뒤돌아보고 있는 아이는 너무 멀리 와버린 지금 우리의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작가가 의도했던 그렇지 않았든 이 작품은 근대화에 대한 아픈 역사를 상상하게 만드는 뛰어난 상징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작가의 많은 작품은 보편적인 공감을 확대할 수 있는 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The Sky and the Earth 194x259cm Oil on Canvas 2008



Tibet Kangrinboqe 182×227cm (150F) Oil on Canvas 2011

새로운 형태의 삶과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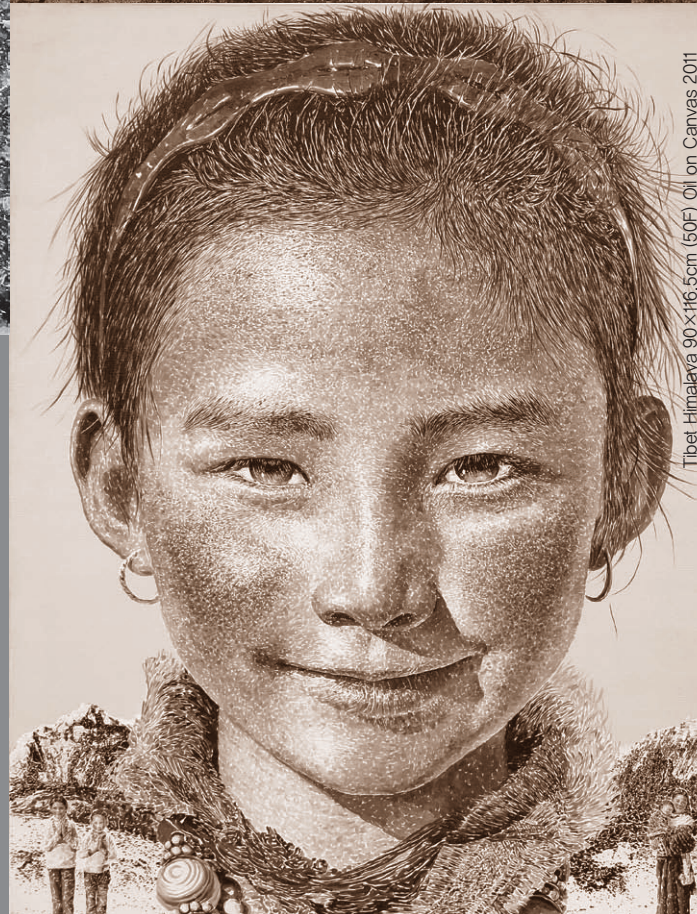
작가의 작품이 보편적인 공감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삶을 통찰하는 욕심 있는 직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작가가 그리고 있는 아이들의 천진한 미소는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희망이자 미래다. 자본의 폭력성과 문명의 이기심을 한방에 날려버리는 이 미소는 사심으로 가득한 왜곡된 욕망이 아니라 우리들의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는 삶의 원초적인 욕망을 상징한다.

지금 소유와 지배로 점철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함께 나누면서 조화롭게 살았던 기억은 인류의 역사에서 훨씬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전통적인 삶의 방식이다. 인간의 본성과 성정을 역행하는 자본의 삶, 혹은 소유의 삶은 이제 무엇이든 가질 수 있는 시대를 가능하게 만들었지만 사실은 아무 것도 가질 수 없는 공허함만을 채우게 된다. 임영선의 작품에 등장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소유를 넘어 존재의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형태의 삶을 만나게 되는 것도 이러한 삶에 지쳐버린 우리에게서는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임영선이 보여주는 작품의 구조는 매우 단순하다. 커다란 인물이 전면에 배치되어 있고 이 인물이 살고 있는 대지가 함께 오버랩된다. 한 명이 등장하든 여러 명이 등장하든 이러한 화면 구조에는 변함이 없다. 작가의 작품은 어렵거나 난해하지 않다. 화려한 수사나 험란한 해석들을 구차하게 만드는 '직설'적인 힘이 있다. 이 '직설' 속에는 예술의 여러 경계를 단숨에 넘어서는 작가의 놀라운 통찰이 숨어있다.



Tibet Himalaya 14×260cm (200F) Oil on Canvas 2010



Tibet Himalaya 90×16.5cm (50F) Oil on Canvas 2011



Mongolia 291cm×218cm (300F) Oil on Canvas 2008

현실과 동행하는 예술로서 공감대 확대

작가가 그리고 있는 아이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만났던 실존인물들이다. 작가는 예술적 실천과 자신의 삶을 동일시한다. 작가는 삶과 현실에서 한없이 멀어져 가야만 했던 예술을 다시 삶의 한가운데로 가져다 놓는다. 그런 면에서 임영선은 탁월한 리얼리스트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작가는 실천의 잉여들을 통해 작품이라는 오브제를 남긴다. 그의 이러한 예술적 실천은 분명한 미학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을 때에만 달할 수 있는 경지다.

만약 작가가 이들의 대지와 아이들을 삶과 무관한 오브제로 대상화하였다면 결코 작가는 이런 미소를 그려낼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이제까지 리얼리즘 미술이 이념과 논리에 얽매어 편향된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임영선은 보편적 공감을 확대하면서도 삶과 현실, 그리고 예술이 아름답게 동행하는 지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휴머니즘 혹은 현실주의 미학의 공간적 확대라는 의미는 결코 간단히 치부될 일은 아니다.

비록 작가의 작품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임영선이 지구 어딘가에 숨 쉬는 그 하찮은 인간의 희망을 끊임없이 찾아다닐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에 충분한 전시였다.

CLOSE CRITICISM_ 지역문화 뒤집어보기

문화의 가치는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

글·김형찬 대중음악평론가



김형찬 ● 부산에서 자라나 팝송키드로 청년시절을 보내다가 음악에 미쳐서 다니던 공대를 말아먹고 음악전공으로 전향하여 대중음악으로 밥 먹는 삶을 실천 중이다. 연주, 작곡, 이론의 3박자를 두루 갖춘 본격적인 음악연구가이다. 돈은 적게 벌고 가급적 안쓰면서 대중음악을 연구하고 집필하는 삶에 집중하여 수십 권의 저서를 남기고 싶다.

문화 관련 종사자가 된다는 것은 문화를 누구보다 앞서서 즐기고
체득하여 겉으로 그 아우라가 풍겨 나오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 아우라에 문화소비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감화되어 문화의 세계로
이끌려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문화전문가이다.

... 우리가 흔히 문화관련 기관이나 문화적
자영업을 평가할 때 그 기관의 프로그램의 수준을
보거나 업소의 분위기나 인테리어를 보고 평가한
다. 그런데 문화는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문화를 만드는 사람은 그 문화와 밀접
한 관련이 있고 그 문화를 이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문화 관련 종사자를 접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먼저
그 문화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된다는 점이다.

최근 한 문화현장에서 본인이 최근 겪었던 몇 가
지 일들을 얘기해보겠다. 문화 관련 사회적기업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사무실은 어지럽혀져 있고
담당직원은 소파에 누워있다가 손님을 맞는다. 음
악전문가라고 신분을 밝히고 질문을 하는데도 답
은 대충하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도 질문자의 양해
도 구하지 않고 자꾸 자리를 뜬다. 최근에 부산에서
벌어진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큰 사건을 물어봐도 모
른단다. 음악전문가가 방문했을 때 이 정도면 일반
인의 경우라면 어떨까?

사정이 이렇다면 이 기업의 프로그램을 접하거나
업적을 보기도 전에 방문자들은 “사회적 기업이란
가난한 문화예술인들을 돕기 위한 자선사업이구나.

그래서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편견을
가지기 십상이다.

부산에는 많은 문화 관련 기관들이 있고 여기에
는 문화 관련 공무원은 물론이고 문화 관련 민간인
들도 채용되어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그런데 본
인도 부산의 문화전문가로서 현황을 파악하기 위
해 꽤 열심히 현장을 다니고 있다. 하지만 문화현장
에서 이들 문화 관련 공무원이나 전문가들을 보기
가 무척 힘들다.

아마도 문화 관련 직업을 그야말로 생계를 위한
하나의 직업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퇴근 후에
문화현장을 돌아보는 일을 귀찮은 잔업으로 생각
한다면, 그것이 즐겁지 않다면 그 자리에 그 사람을
잘못 뽑은 것이다. 만약에 본인들은 문화현장을 돌
아보고 싶으나 산더미 같은 일 때문에 불가능하다
면 그렇게 직원들을 부리는 기관장들이 문화를 잘
모르는 것이며 그들을 잘못 뽑은 것이다.



... 여전히 낙후된 부분_문화원들

요즘 각 구에서 문화원들이 생겨나서 주민들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문화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활동에 비해서 여전히 낙후된 부분은 문화원 직원들의 문화적 분위기다. 굳은 표정에 무뚝뚝한 말투, 회사원과 같은 평범한 복장을 접하면 과연 여기에 즐겁고 세련되고 수준 높은 문화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미소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감정노동의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돈을 벌기 위한 억지미소가 아니라 자발적인 호의적 태도가 문화 관련 종사자들의 기본 덕목이라는 말이다.

그 반대의 경우를 상상해보자. 주민들을 맞는 문화원 직원들이 환한 미소와 상냥한 말투를 지니고 의상까지 문화적 분위기가 풍길 정도로 세련되었다면 이런 직원들이 있는 곳이라면 프로그램은 당연히 훌륭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하면 '내가 문화적으로 세련된 사람이 되겠구나'라고 저절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 여전히 낙후된 부분_상업적 업소

문화에 관심이 있는 민간인들이 경영하는 상업적 업소도 이런 경우가 많다. 부산대학 앞의 어떤 카페에 갔을 때의 일이다. 오래된 건물을 멋지게 살려서 장식을 했고 비싼 돈을 들이지 않고도 빈티지한 느낌으로 센스 있게 꾸민 그야말로 개념카페였다.

그런데 분위기가 좋아서 내가 몇 가지 질문을 해도 주인은 굳은 표정으로 경계하는 빛이 역력하다. 음악전문가라고 신분을 밝히자 주인은 그때서야 경계심을 푼다. 처음 보는 사람에 대해 먼저 경계를 하는 상태라면 가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정주부로서의 역할이 가장 적절한 것이 아닐까?

어떤 유원지에 있는 한 카페에 갔을 때의 일이다. 유럽의 어떤 지방의 작은 카페를 연상시킬 정도로 아기자기하고 섬세하게 꾸며진 카페였다. 마음속으로 짚해놓고 자주 와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조용하고 세련된 분위기에 취해서 나 혼자 조용히 음악도 듣고 책을 보는데 주변에 사는 가족인 듯한 사람이 들어와서 주인과 종업원과 어울려 시끄럽게 수다를 떠다. 가게에 들어와 있는 손님도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이다. 카페의 장식과 분위기는 훌륭했지만 주인의 태도가 기분을 망치고 말았다. 과연 주인은 이 사실을 알까?



일만 잘하면 되지 그런 외적인 것이 중요하냐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문화상품을 다루는 문화 관련 종사자들의 표정, 낯빛, 복장은 이미 문화상품의 내면을 알리는 중요한 걸 포장지다. 요즘에는 물건을 파는 제조업들도 이런 사실을 중요하게 여긴다.

너무 선불리 판단하지 말고 시간을 갖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할지 모른다. 물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접하고 판단하면 그 종사자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바쁜 세상에 누구나에게 그런 시간이 쉽게 주어질까?

물론 문화적 사명감을 갖고 거기에 걸맞은 태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문화 관련 종사자들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고 부산시민들이 이런 일을 자주 접하면서 부산의 문화에 대한 일차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는 점이 문제이다.

... 진정한 문화전문가가 되어야

문화인이 된다는 것은 그냥 문화를 즐기면서 재미있게 지낸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문화를 통해 내면을 성장시키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걸음으로 드러나서 매력적이고 세련된 사람이 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다. 이것을 모르게 되면 명품이나

사치품의 과소비로 자신을 치장하지만 공허함을 감출 길이 없게 된다. 문화 관련 종사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문화에 관해서 박식하고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문화를 누구보다 앞서서 즐기고 체득하여 걸음으로 그 아우라가 풍겨 나오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 아우라에 문화소비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감화되어 문화의 세계로 이끌려 들어오게 된다. 그것이 진정한 문화전문가이다.

이렇게 문화인이나 문화 관련 종사자들의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치는 현상은 아직 부산의 문화가 허기진 상태를 채우는 단계이지 그 내용을 세련되게 가꾸어가는 상태는 아니라는 말일 것이다. 부산 사람이 원래 무뚝뚝하고 걸음으로 세련되지 못한 점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며 그것이 지역적 특징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역적 특징은 일반인 선에서 머물러야 할 것이다. 문화 관련 종사자들 특히 문화소비자들을 자주 접하는 종사자들에게 이런 특징은 더 이상 미덕이 될 수 없다. 더 나아가 문화적 전문성에 걸맞은 외적인 아우라를 갖추는 일이 진정한 문화적 전문가가 되는 길임을 한 번쯤 생각했으면 한다.

CLOSE CRITICISM 지역문화 뒤집어보기

‘출판’에서 ‘출판기념회’까지의

문화 표정

글 · 정훈 문학평론가

언제부턴가 책을 펴내면,

‘출간’했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을 많은 돈을 들여가며

‘기념회’라는 이름으로 알리는 일이 당연한 것처럼 정착되었다.

이것이 작품의 문학적인 성과에 관계없이 ‘저자’를 띄우는

뻘한 자리로 끝을 맺는 행사로 전락하지 않았는지

우리 모두 반성해 보아야 한다.



작가에게 책을 펴내는 일만큼 보람 있는 경우도 드물 것이다.
곱든 밋든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내놓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출판사를 정하고
책을 서점에 배포하기까지 여러 차례 출판사와 교섭을 하고 원고를 다듬는 과정
또한 번잡하거니와, 어렵사리 출판을 하더라도 흔히 ‘출판기념회’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정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한 권의 저서를 내놓는 일은 작가에게 보람에
겹쳐 크나큰 스트레스가 된다.

수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문학 시스템

물론 하나의 성과를 만드는 작업은 또 다른 하나의
고통을 수반한다는 말에 지나지 않다. 고통 없는 생산이
어디 있겠는가. 모든 문화 생산이 그렇겠지만 그 가운데
서도 더욱이 문학예술은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는
문화 영역이다. 혼자만의 고독한 글쓰기로 세상에 빛을
주겠다는 의지가 수반하지 않는 어떤 문학도 허위와
자기기만에 지나지 않다.

지역에서 양질의 책들을 출판하기 위해 노력하는
출판사와, 마찬가지로 좋은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 고심
하는 시인과 소설가들의 행복한 ‘밀애’ 끝에 ‘책’이라는
‘옥동자’가 나온다. 그 ‘옥동자’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눈으로 비춰지는가는 오로지 사회적 ‘명운’에 달려
있다. 출판사와 언론사의 광고나 사회 분위기,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독자들의 집단 심리가 그것이다.
여기에 작품의 문학성은 손쉽게 ‘가려진다.’

문단에서 몇 년 동안 지내면서 출판에 관련한 여러
이야기를 들곤 한다. 그리고 책을 출판하려는 작가들의

속내 또한 듣는 경우가 생긴다. 먼저, 제 ‘상품’을 ‘안목
있고 교양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심리가
인지상정이지만, 더러 지역 출판사가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출판사에 자신의 작품을 내고 싶어 하는 작가들을
보게 된다. 이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속으로는
한심하지만, 겉으로는 응당 수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문학 시스템’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흔히 메이저급 출판사에 책을 내게 되면 커다란

‘행운’이기 때문이다. 그걸 이해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사실 자신의 책을 어떤 출판사에 의뢰해서 내는가는
오로지 작가가 판단할 일이요, 이 문제가 크게 거론할
만한 요소인가 왈가왈부하는 것이 옳지 않겠다는 느낌도
드는 게 사실이다. 모든 문화가 중앙으로 집중해서
쏟리는 현상은 그 자체로 선도 악도 아니다. 문화는
생산과 소비의 측면을 지니기에 그렇다. 시장이 넓은
곳에 유·무형의 창조 행위 또한 다른 곳보다는 활발해
지는 경우를 생각해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저자를 띄우는 데 급급한 자리

지역문학이 통로를 시원하게 찾지 못하고 어딘가 모르게 경색되어 있다는 진단은 나만의 판단은 아닐 것이다. 문학은 보편성을 띠고, 보편성을 지향한다지만 그 시스템만큼은 왠지 매끄럽지가 않은 듯하다. 이곳 부산에서도 여러 문학단체에서 출판과 관련한 행사들을 마련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작품집을 출간한 시인이나 소설가를 초청해 그 작품에 대한 토론과 작가의 소감을 들어 보는 자리이다. <부산작가회의> <부산시인협회> <부산문인협회>와 같은 대체로 규모가 큰 단체에서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 자리에 초청을 받은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동료 문인들에게 소개하는 측면에서 뜻 깊은 공간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나 그동안 열심히 글 썼소하는 무언의 항변 또한 동료 작가들에게 창작 에너지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자리는 대체로 자기가 속해 있는 문학단체의 회원에게만 자격이 주어진다. 내가 문단 생활을 하면서 여러 번 이런 행사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점은 참으로 복잡 미묘하다. 사실 지역 문단에서 이런 자리조차 마련되는 곳이 그리 많지는 않다. 가끔 '중앙'에서 활동하고 있고, 대중들에게 이름이

널리 알려진 작가를 초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행사 공간이 발 디딜 틈도 없이 인산인해를 이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른바 '이름 없는' 지역 작가가 '이곳'에서 출판 행사를 할 때는 그 작가가 소속한 단체의 회원들 몇몇과 둘레 사람들만 모이게 된다. 이것은 어쩌면 푸념에 이어지는 '지역문단'의 현실로 귀착하게끔 한다. 자, 현실과 현상은 그렇다 치고 속내는 어떠할까.

사실 '문학' 행위는 문화의 가치를 창출하는 행위이다. 얼마나 지속적으로 작가 자신의 문제의식을 언어로 형상화하고, 이를 공동체에 보여줌으로써 그 공동체가 영원히 지켜 나가야 할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언제부턴가 책을 펴내면, '출간'했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을 많은 돈을 들여가며 '기념회'라는 이름으로 알리는 일이 당연한 것처럼 정착되었다. '개인 창작'이 '사회 문화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문학단체에서 행하는 출판기념회를 겸한 토론회 또한 마구잡이식 행사로 전락하지 않았나. 우리 모두 반성해 보아야 한다. 주로 비평가를 발제자로 한 토론회지만 막상 진행하는 것을 보면 작품의 문학적인 성과에 관계없이 '저자'를 띄우는 뻘한 자리로 끝을 맺는다.

지역에서 문학하며 살아가기

물론 나 또한 이런 '관행'에서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저런 출판을 겸한 토론회의 발제자로 여러 번 참석했으면서, 정작 '비평가'로서 냉정한 서평 발제 한 번 제대로 해 본 적이 없으니 말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역'에서 문학하면서 살아가는 일이 일반 독자들에게는 괜한 생색내기요,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빈껍데기일 뿐인 '문화 행위'를 담당하고 있지는 않을까. '출판'행위에 한 몫을 한 저자라면 마땅히, 지금까지 허울처럼 자신의 머리에 뒤집어 쓴 '문화생산자'로서 자부심이 들어 있는 '왕관'조차 내던져버려야 한다.

출판을 축복이자 영예가 아니라, 엄혹한 심판과 시련을 감당해야 할 '지옥의 관문'으로 여긴다면, '이곳' 문학의 표정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것은 제대로 된 출판 철학을 가진 출판업자의 확산을 가져온다. 문인에게는 말할 필요도 없이 자신의 작품에 대한 냉혹한 검열이 생겨날 것이며, 비평가로서는 작품성에 바탕 한 정직한 평문의 생산을 만들어 낼 것이다. 문화도시는 이런 철학을 가진 문화생산자가 늘수록 그 이름에 준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 국한

정훈 ● 문학평론가. 2003년 부산일보 신춘문에 당선.

CLOSE CRITICISM_ 지역문화 뒤집어보기

응시와 기다림의 미학 김영조의 다큐멘터리

글·김이석 영화평론가 사진·김영조 감독

낮고 긴 뱃고동과 함께 서서히 화면이 밝아지면 인천과 중국 단둥을 오가는 여객선의 모습이 보인다. 출항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각양각색의 모습들 가운데 카메라를 든 감독의 모습이 얼핏 스쳐간다. 여행자와의 인터뷰, 감독의 내레이션, 그리고 〈목구멍의 가시〉(2009)라는 제목을 가진 이 영화에 모티브를 제공한 감독의 어머니의 인터뷰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영화는 천천히 본론을 향해 들어간다.

기다림의 미학

미발표작인 〈사냥〉(2011년)을 논외로 한다면, 김영조 감독이 지금까지 발표한 세 작품은 모두 프롤로그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앞서 〈목구멍의 가시〉의 도입부를 길게 설명하였지만, 감독의 첫 작품인 〈가족초상화〉(2007년)나 〈태백, 잉걸의 땅〉(2008년)에서도 프롤로그는 영화의 주제적인 측면에서나 서사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가족초상화〉의 프롤로그는 암실에서 사진을 현상하고 있는 젊은 남자의 모습을 담은 영상과 몇 장의 가족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상소의 남자가 김영조 감독 본인이며, 프롤로그에 등장한 가족사진 또한 감독의 가족사진이라는 사실은 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에야 알게 된다.

〈태백, 잉걸의 땅〉의 프롤로그는 시청각적으로 좀 더 강렬하다.

한 남자의 거친 숨소리와 더불어 산소마스크를 착용한 환자의 모습

〈목구멍의 가시〉 스틸 #_01

〈목구멍의 가시〉 스틸 #_02

김영조 감독은 자기 작품의 절대적인 지배자 역할을 포기한다. 상황을 통제하기보다는 혼돈스런 상황 속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던져놓는다. 덕분에 그의 영화는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바라보는 진정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

김이석 ● 동의대학교 영화학과 교수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에 관해 연구하였으며, 현재 부산독립영화협회와 부산영화평론가협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보인다. 칼보즈업으로 포착된 환자의 모습과 끊어질 듯 거친 숨소리가 관객의 시청각적 감각을 사로잡는 가운데 태백으로 들어가는 철도의 모습이 이어진다. 철길을 따라 카메라가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이 영화의 무대인 태백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가족초상화〉에서 〈태백, 잉걸의 땅〉을 거쳐 〈목구멍의 가시〉에 이르기까지 김영조 감독의 영화에서 프롤로그는 관객들을 감독 자신이 창조한 영화적 세계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태백, 잉걸의 땅〉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도입부의 강렬한 시청각적 이미지는 관객들을 단숨에 객석에서 영화적 공간 속으로 옮겨놓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다큐멘터리의 고전적 가치에 충실

〈목구멍의 가시〉의 도입부 역시 관객들에게 앞으로 전개될 다소 기이한 여행의 분위기를 암시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안내자 역할을 충분히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족초상화〉의 경우처럼 프롤로그가 영화의 주제의식을 더욱 심화시키고, 관객의 정서적 반응을 고양시키는 촉매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김영조 감독이 이처럼 프롤로그를 즐겨 사용하는 이유는 그가 기다림과 응시라는 다큐멘터리의 고전적 가치에 충실한 감독이라는 사실과 관련이 깊다. 알다시피 한국의 독립다큐멘터리는 1980년대와 1990년대라는 정치적 격변기에 급성장하였다는 정치적 배경 탓에 강렬한 주제

의식과 선명한 메시지가 중요시되었다. 이런 종류의 영화들 속에서 감독은 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치적 메시지의 수호자로 인정받곤 했다. 하지만 감독으로서 김영조는 자기 확신에 찬 인물이 아니라 스스로를 의심하는 자이며, 현실의 무게를 견디지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 아니라 촬영 대상이 되는 인간과 공간, 그리고 사건들이다. 그렇기에 그는 폐광 문제와 같은 정치적 소재를 다룬 <태백, 잉걸의 땅>에서도 가급적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하는 영화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는 김영조 감독의 태도가 낯설지 모르지만 영화적 윤리란 주제의 올바름보다는 세계와 인간을 대하는 창작자의 태도에 달려 있음을 감안한다면, 김영조 감독의 영화야말로 윤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김영조 감독의 영화에 등장하는 정서적 예열 과정과도 같은 프롤로그는 김영조의 영화를 특징짓는 중요한 영화적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영화적 윤리란 주제의 올바름보다는

세계와 인간을 대하는 창작자의 태도에 달려

있음을 감안한다면, 김영조 감독의 영화야

말로 윤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목구멍의 가시> 스틸 #_03



<태백, 잉걸의 땅> 스틸 #_01



<태백, 잉걸의 땅> 스틸 #_02



<가족초상화> 스틸 #_01



<가족초상화> 스틸 #_02



<가족초상화> 스틸 #_03

우연성의 미학

형식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때, 김영조 감독은 인터뷰를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인터뷰 내용들이 영화의 서사적 전개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이야기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혹은 영화의 방향을 뒤바꾸어 놓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한국 입국 후에 연락이 끊어진 조선족 친척을 찾으려다 결국 중국 길림성까지 여행을 하게 되는 <목구멍의 가시>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처럼 영화의 핵심적인 내러티브가 흔들리는 상황이 벌어질 때, 김영조 감독은 이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조정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감독 자신의 궤도를 수정하는 방식을 취하곤 한다는 사실이다. 사실 영화감독이 자신의 작품 속에서 절대적인 지배자의 역할을 포기한다는 것은 적어도 한국의 다큐멘터리에서는 쉽게 발견하기 힘든 태도다. 하지만 김영조 감독은 상황을 통제하고 조정하기보다는 혼돈스런 상황 속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던져놓는다. 이런 선택은 현실 혹은 세계가 영화보다 더 크고 중요하다는 인식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덕분에 김영조 감독의 영화는 늘 우리의 상투적인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는 경이로운 순간들을 담아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목구멍의 가시>에서 길림성에서 생면부지의 친척들을 처음 만났을 때 반가움과 어색함이 공존하는 기묘한 순간에 대한 묘사, 그리고 담소를 나누다가 제 흥에 겨워 찬송가에 맞춰 어깨춤을 추는 중년 여인의 모습을 담은 장면 등은 감독이 자기 자신을 상황 속에 던져 놓았기 때문에 대면할 수 있었던 순간들이다.

다큐멘터리란 인위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응시와 기다림을 통해 진실을 포착하는 것이라고 믿는 김영조 감독의 영화는 삶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의 기록이며, 생(生)과의 직접적인 대화다. 하지만 현실과의 직접적인 대화가 늘 흥미진진한 것만은 아니다. 때로 이 사전작본 없는 대면 앞에서 감독은 창작자 이전에 인간으로서 흔들리고, 회의하고, 두려워한다. 특히 그의 개인사가 깊이 개입된 <가족초상화>나 <목구멍의 가시>와 같은 작품에서 이런 두려움과 떨림은 관객들이 생생히 감지할 정도로 뚜렷하게 드러난다. 하지만 감독은 이런 떨림과 긴장을 감추기 보다는 영화의 일부로 끌어들이는 용기가 필요했음에 틀림없는 이런 선택 덕분에 그의 영화는 진정성이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가치를 얻게 되었다.

CLOSE CRITICISM_ 지역문화 뒤집어보기

부산 연극계에서 당장 필요한 것은

글·김동석 사진·부산연극협회



연극〈대품에는 말(말)이 산다〉

좋은 연극을 만들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좋은 극본과 좋은 배우의 연기 그리고 좋은 무대.

하지만 그 무대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 3가지 외에

또 다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바로 극단의 창작 환경과 자본력 그리고 제도적 발판이다.

지금 부산 연극계는 이것을 고민하고 있다.

미시적 부산 연극 사정은?

최근 부산 연극은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 내년이면 30회를 맞이하는 부산연극제는 창작 초연작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연대회로서 매년 꾸준한 관객 증가를 기록해 전국 각 지방연극제의 롤 모델이 되고 있으며 부산국제연극제 또한 부산의 대표적인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했다. 그리고 마루연극페스티벌, 젊은공연예술축제, 광대연극제 등 크고 작은 연극 관련 행사도 연중 꾸준히 개최되어 관객과 함께 호흡하고 있다. 하지만 미시적으로 부산연극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그리 좋지 않다. 정작 부산 연극의 뿌리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극단들의 창작환경 및 재정은 예전에 비해 전혀 나아진 점이 없으며, 여전히 연극인들은 예술가로서의 자긍심 하나로 작품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소극장은 여기저기서 새로이 생겨나고 있지만 대다수의 극장은 기획사가 서울의 작품을 유치하기 위해 개관한 것이며, 기존의 소극장들 또한 운영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기획사로 예측되고 명칭 또한 기획사의 이름으로 바뀌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업적 논리 아래에서 지역 극단들이 자신만의 색깔을 갖고 작품 활동을 유지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본력을 앞세워 마케팅에 투자를 하고 유명 연예인을 전면에 배치하여 홍보를 진행하는 대형기획사와 지역의 극단이 동일선상에서 경쟁하기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부산 특색 나타낼 창작희곡 부족

현재 부산 연극의 내재적 문제점 중 하나는 꾸준히 작품 활동을 전개하는 전문적인 희곡작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연극의 3요소 중 창작활동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희곡의 부족은 창작극 공연의 부진과 직결되는 문제다. 부산만의 특색을 나타낼 작가와 창작희곡이 부족한 탓에 창작극 공연이 부진하게 되었는지, 재정상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와 맞물려 대다수의 공연이 기성극으로 채워져 창작희곡을 경시하는 풍조가 생겼는지에 관해선 서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하지만 확실한 점은 현재는 위 두 현상

1. 연극〈대술에는 말(말)이 산다〉
2. 연극〈돌고 돌아가는 길〉



이 서로 상호간의 원인과 결과로서 동시에 역할을 하여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한국연극협회 부산광역시지회에서는 2005년부터 부산연극제 경연부문의 참가조건을 창작초연작으로 제한했다. 이는 부산의 연극계에 문제의식을 고취시키고 활기를 불어넣어 부산연극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기 위함이었다. 이리하여 제도가 첫 정립된 제23회 부산연극제에는 5편의 창작초연작이 무대에 오르게 됐으며 이후로도 매년 평균 7~8편의 창작초연작이 관객을 찾아가게 됐다.

제도의 수정으로 부산연극제 경연부문에 참가하는 극단들은 자연스레 수준 높은 창작희곡을 찾아 나서게 됐다. 하지만 지난 세월 동안 부산의 희곡작가 풀은 이미 열악할 대로 열악해진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다시금 확인하게 된 것은 부산 희곡작가들의 안타까운 극작 환경이었다. 그래서 (사)한국연극협회 부산광역시지회에서는 부산 지역 극작가들의 경쟁력을 기르고 창작극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전국창작희곡공모전'을 시행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부산의 신인희곡작가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부산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산신인창작희곡공모전'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노력은 즉시 성과를 드러내는 듯 했다. 제1회, 2회 전국창작희곡공모전에서 부산 희곡작가의 작품이 은상, 금상에 입상하게 되면서 부산의 작가도 전국의 작가들과 비교하여 충분한 경쟁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였으며 부산 희곡작가들의 자부심을 드높인 것이다. 비록 3회와 4회 공모전에서는 부산의 작가들이 입상에 실패했지만 본 공모전을 통해 작품 활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동기를 얻게 된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아킬레스건, 부산의 젊은 희곡작가 발굴 과제

그러나 부산 지역의 희곡작가 지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산신인창작희곡공모전은 작년과 올해 그 응시 작품 수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다른 분야의 젊은 예술인들이 그러하듯이 젊은 예술인들이 부산을 이탈하는 데 가장 큰 이유가 있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기성 극단들이 무대에 공연을 올리기에만 몰두했지 전문적인 극작가 양성에는 소홀한 책임도 크다 하겠다. 이러한 문제점은 부산 희곡작가의 신규 유입 부족으로 이어져 향후 부산연극계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부산연극예술이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지속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젊은 희곡작가의 발굴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지역대학의 문예창작학과와의 연계, 부산희곡작가협회의 활성화, 극단별 전문 극작가의 도입 등 신규극작가를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김동석 ● 부산 출생, 대학시절 전공과 무관하게 연극을 알게 되어 배우로 활동을 하다가 부산연극협회 회장으로 일을 하게 됨. 부산 연극을 고민하게 되고 나아가 부산 예술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여기에 더욱 아쉬운 점은 지역 극단에서 수준 높은 창작극을 제작하여 평단과 관객의 좋은 평가를 이끌어내어도 지속적인 공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한 번의 공연으로 그치고 만다는 것이다. 이것은 순수예술의 한계이기도 한, 수익성 부족의 문제로 인한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창작극을 제작하게 되면 배우 트레이닝 기간과 의상비, 무대제작비 등 기성극을 공연하는 것보다 몇 배의 시간과 자금이 소요된다. 하지만 현재 대다수 지원사업의 지원금은 작품 제작비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인지라 지역 극단에서 극장을 장기간 대관하고 공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나마도 지원사업의 성격이 작품을 제작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훌륭하게 제작된 작품이 지속적으로 공연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는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근본적으로 제도와 환경의 변화 필요

그리고 부산 지역 예술가의 부산 이탈현상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부산 문화예술의 미래는 한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는 동굴 속 어둠과 같다. 기성예술가들은 인프라의 부족과 지원의 한계로 인하여 부산을 떠나거나 예술 활동을 중단하고 있으며 신진예술가들은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곧장 서울로 향한다. 연극의 경우에는 배우마저도 부족하여, 극단이 공연을 올리지 못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는 서울공화국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의 현실상 그런 면도 있겠지만 더욱 큰 원인은 부산에서 작품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와 환경이 너무나 열악한 탓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좋은 작품이 제작되기도 어렵거니와 관객들 역시 부산 극단의 창작연극작품을 외면할 수밖에 없게 된다. 부산지역의 문화와 예술을 부흥하기 위하여 3년 전 부산문화재단이 창립되었지만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순수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조그마한 파이 나눠먹기에 그치고 있다. 한 예술 분야의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른 예술 분야의 지원을 줄여야하는 형국이니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질 리가 만무하다.

이렇듯 열악하고 부족한 부산의 순수 문화예술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산시는 문예진흥기금을 지금의 액수 보다 몇 배 더 확보해야 하며 부산문화재단은 부산시의 부족한 재정적 지원에만 의존하는 데에서 벗어나 기업들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여 기금 조성의 다양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등 지역문화기관과도 협력을 강화하여 부산의 예술가들에게 단순히 재정적 지원을 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악}





거리 춤은 화려한 무대와 조명에 길들여지고 코드화된 춤에게 잃어버렸던 본성을 되찾아준다. 새로운 몸의 춤, 거리 춤과 함께 부산은 춤의 고향으로 다시 태어난다.



〈M-note〉무용단의 '브로큰 호리존트'.

거리예술창작단 〈랄랄라 스트라다〉의 2011년 거리 춤

글·최찬열

사진·거리예술창작단〈랄랄라 스트라다〉

다시, 부산은 춤의 도시다! 웬 말인가? 예부터 '전라도는 소리의 고향이요 경상도는 춤의 고향'이라는 말이 있다. 또, 이러한 옛 명성에 걸맞게 60년대를 거쳐 9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부산은 춤이 아주 센 고장이었다. 걸출한 춤 작가들의 왕성한 창작활동과 함께 젊은 춤 작가들의 실험적 작품들이 활발하게 생산되는 지역이었다. 하지만 그 후, 부산 춤은 침체기를 거쳐, 지금은 거의 아사 직전에 이르렀다. 여기저기서 부산 춤을 걱정하는 한탄의 신음 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부산 춤은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다. 젊은 춤과 함께, 그리고 거리 춤과 더불어.

올해, 춤 동네에서 벌어지는 몇몇 의미 있는 활동들은 이런 앓는 소리를 날려버리게 한다. 춤패 〈연분홍〉과 임현미는 안정적이며 완성도 높은 작품을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으며, 신은주는 춤 전용극장을 마련하는 등 춤 인프라를 공고히 구축하고, 그곳을 발판삼아 국제교류에 힘쓰며 활동반경을 넓히고 있다. 김옥련은 쉽고 재미난 발레 공연과 시민 속으로 찾아가는 여러 공연 형태들을 통해 춤 대중화에 열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Red step〉과 허경미는 서서히 자신의 춤 색깔을 드러내며 양식성 강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M-note〉의 신승민, 신상현도 꼭 주목해야 하는 춤꾼들이다. 무대와 거리를 가리지 않고 넘나들며 저돌적인 춤

창작 활동에 매진하는 이들의 활동반경은 이미 지역을 넘어서고 있으며 실험적이고 파격적인 작품들은 부산 춤의 신선한 자극제이다. 이외에도 연극성 강한 작품을 만들어 내는 강희정, 재치와 기발한 상상력으로 무장한 김미란과 조희정, 그만의 독특한 내면세계를 여과 없이 무대에 올리는 박재현 등도 오늘 부산 춤을 이끌어 가는 주역들이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거리 춤, 거리예술 창작단 〈랄랄라 스트라다〉가 깃발을 높이 들고 외쳤다. 이제, 춤은 거리로!

2011 〈랄랄라 스트라다〉 거리 춤 페스티벌

(2011년 8월 28일, 하오 5시부터, 동백섬~해운대 해수욕장 일대 / 2011년 8월 29일, 하오 5시부터, 광안리 해수욕장 일대)

늦여름, 며칠 동안 해운대와 광안리 해변은 젊은 춤꾼들의 거리 춤과 함께 '아름답게 빛났다'. 총 17 작품이 함께 한 랄랄라 페스티벌과 컬렉션에서 거리 춤의 모범이 될 만한 빼어난 몇몇 작품들을 만날 수 있었다. 〈M-note〉무용단의 '브로큰 호리존트', 〈트러스트 무용단〉의 '굴러가는 낙타', 김영찬의 '해프닝... 만남', 조주은의 '당신은 지금 어떠신가요?', 조희정의 '우르르 황광'은 춤의 고향 부산이 되살아나는 뚜렷한 징조였다.

왜 거리 춤인가? 거리 춤은 무대장치와 음향, 조명에 관한 근본적인 시각교정을 요구한다. 〈M-note〉무용단은 '브로큰 호리존트'에서 광활한 자연경관을 무대장치 삼아 순수한 몸의 꿈과 욕망을 한 폭의 그림처럼 혹은 한 편의 영화처럼 그려낸다. 대자연을 바탕으로 영화적 장면, 스펙터클을 연출하는 대작이다. 동백섬 청정구역 안 해변에는 두 종류의 몸이 여기저기 널려 있다. 하나는 춤꾼들의 몸이고, 다른 하나는 흰 천으로 만든 가공된 몸이다. 그리고 TV와 안테나, 캔 음료수 등의 가공물이 큰 바위, 자갈 등의 자연물들과 이질적으로 섞여 있다. 장소를 잘 활용하며 소품들을 회화적으로 아름답게 배치하였다.



조희정의 '우르르 광광'

인간의 몸에는 자연과 문명이 공존한다. 춤꾼들의 춤추는 몸은 이 둘 사이에서 방황한다. 출렁이는 파도와 춤은 묘한 조화를 이룬다. 춤꾼들은 자신들의 몸에 섞여 있는 문명의 찌꺼기들을 털어내듯 격렬한 춤을 추다가 날 것 그대로의 몸으로 자연 속에 안긴다. 춤은 다소 거칠고 세련되지 못한 면이 있다. 춤을 추기에는 다소 불편한 장소 탓이라. 하지만 젊고 역동적인 에너지가 분출하는 춤은 짙은 예술적 표현력을 담고 있고, 다소 도발적이며 실험적인 주제의식도 분명하게 전달된다. 아쉬운 점도 있다. 관객들이 함께 접근할 수 있는 장소를 택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또, 거리 춤에 적합한 자연음과 바위, 돌 등의 자연물을 이용한 소리, 라이브음악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작품이었다.

거리 춤은 춤의 원천이다. 분장과 조명, 치장한 무대의상을 벗은, 민낯과 맨몸으로, 날것 그대로의 몸으로 추는 거리 춤은 '순수한 새로움'을 쫓아나기 때문이다. 〈트러스트무용단〉의 춤꾼들은 '굴

러가는 낙타에서 유목민이 된다. 그들은 초원을 떠돌다 혹은 사막을 헤매다 쉴 곳을 찾는다. 그들이 머무는 곳은 공중화장실 앞이다. 그러자 가장 세속적인 일상의 공간은 예술적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가로수 나무를 활용해 빈 병과 캔 등의 소품을 알맞게 설치하고 마두금 연주가 더해지며 춤이 시작되자 그곳은 오아시스가 된다. 장소 선택이 매우 기발하고 문학적이다. 거기서 유목민의 몸적 상상력과 꿈은 마치 한 편의 시처럼, 혹은 동화처럼 펼쳐진다. 그들은 춤추며 논다. 어린아이의 춤이다. 조건 없는 낙타의 순종도 맹목적인 사자의 분노도 다 털어내고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의 몸으로 노는 그곳에서 장소의 의미는 뒤집힌다. 맨몸으로 콘크리트 바닥을 뒹굴며 몸을 아끼지 않

고 춤추는 춤꾼들의 프로 근성이 감동적이다. 그리고 술 취한 아저씨의 우연한 등장을 작품 속으로 녹여내는 춤꾼들의 노련함도 대단히 '거리예술'적이다. 관객의 돌발적인 참여로 새로운 배역이 탄생하는 벽찬 순간을 만끽할 수 있었다. 또, 이러한 돌발적 상황을 절정으로 몰아가는 대목은 거리 춤의 백미였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었다. 거리예술 관점에서 볼 때 도입부가 다소 길고 추상적이었다. 또, 거리 춤의 특성을 잘 살려 시민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2011 랄랄라 거리 춤 컬렉션

(2011년 9월 29일, 하오 3시부터, 해운대 해변 일대)

거리 춤은 일상의 도시 공간과 가로등, 신호등, 벤치 등의 사물들을 새롭게 살려낸다. 김영찬의 '만남... 해프닝'은 장소 활용에서 거리 춤의 모범을 보여준 작품이다. 춤은 길을 활용해 이동하며 작품을 진행하는 것이 아주 인상적이었다. 작품은 길 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종류의 우연한 만남을 그린다. 만남은 언제나 우발

적이다. 몸과 몸이 부딪히고, 말과 말이 충돌하고, 거리의 조형물과 춤꾼들의 몸이 어울리며 돌발적인 사건이 발생한다. 사물장단과 찌그러진 캔으로 콘크리트 바닥을 긁어서 내는 소리, 철제 조형물을 두드려 내는 소리가 우연한 만남과 묘하게 어울리며 거리는 사건의 공간이 된다. 기존의 음향을 사용하지 않고, 굴곡진 길을 따라가며 그곳에 설치된 조형물과 사물들을 즉흥적으로 이용한 창의성 돋보인다. 거리예술 정신에 잘 들어맞는 빼어난 작품이다. 하지만 도입부에 벤치와 조형물을 잘 살렸음에도 두 남성 춤꾼의 춤 동작이 역동적이지 못했고, 이후 군무도 밋밋한 점이 조금 아쉬웠다.

무한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한평생은 순간이다. 마치 길을 가다 건널목을 건너는 짧은 순간처럼. 조주은의 '당신은 지금 어떠신가요?'에서 건널목은 삶을 반추하게 하는 강한 울림의 장소이다. 춤꾼들은 손을 들고 그곳을 건너다 풍선을 바닥에 깔고 엎드리며 땀! 터트린다. 그 소리에는 죽음의 뉘앙스가 묻어 있다. 또, 춤꾼들은 포용한 자신들의 가슴 사이에 풍선을 넣고, 꼭 안으며 팡! 터트린다. 그 소리와 함께 두 몸은 소통한다. 풍선은 다른 두 공간에서 죽음과 사랑의 모티브로 다르게 이용된다. 도로 차량 흐름을 고려하며 건널목을 이용하는 안무는 대단히 창의적이면서도 인상적이다. 장소 활용의 모범을 보여준 탁월한 작품이다. 또 춤꾼들이 여기저기 배치해나가는 방식도 훌륭했고 도시의 거리 공간을 이용하며 탁월한 시각적 효과를 만들어내었다. 하지만 공간을 더 짜임새 있게 이용할 필요가 있다. 거리 춤에 맞는 내용과 이것을 시각적으로 잘 드러나게 하는 방법도 철저하게 고민해야 한다. 장소 선택과 주제가 훌륭했음에도 구심점이 흐트러져 다소 산만했고 춤꾼들이 긴장한 탓에 몰입도가 떨어졌다.



김영찬의 '해프닝... 만남'

조희정의 '우르르 광광'은 재미있는 한 편의 우화 같다. 해운대해수욕장 입구에 몇 마리의 개가 출몰한다. 이들은 롯데리아 앞에 진을 치고 먹을 것을 달라고 아우성친다. 그들의 절박한 생존투쟁이 그 부근을 빠르게 오가며 사실적으로 그려진다. 현실을 빔태어 조롱하는 뚜렷한 서사구조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 먹을 것을 두고 싸우는 그들의 목숨을 건 투쟁이 처절하게 그려진다. 몸을 사리지 않고 콘크리트 바닥을 맨몸으로 뒹굴며 싸우다 차례로 쓰러져 한 무더기의 군상으로 쌓일 때, 그들의 형상은 마치 길거리의 오물 덩어리처럼 처참하다. 그러나 거기에는 어떤 숭고함이 있다. 몸 너머, 생명의 숨결이 드러나는.

원초적 몸은 대지와 자연과 친밀하였다. 직립 보행을 하기 전, 인간의 몸은 대지와 더 가까워서 대지를 느끼는 몸이었고 자연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별거벗은 몸이었다. 이런 몸이 치장하고 옷을 입으면서, 화려한 조명을 받으면서 코드화되고 습관화되며 포획되었다. 거리 춤에서 이런 몸은 자신의 본성을 되찾는다.

기존의 춤 스타일로 코드화된 몸, 액자무대에 길든 습관화된 몸, 권력과 자본에 포획된 몸의 춤은 해체되고 새로운 몸의 춤이 생겨난다. 춤꾼들이 반복적 훈련을 통해 익히는 이런저런 스타일의 춤은 버리기 위해 습득하는 것이다. 기존의 몸짓을 해체하기 위해 새로운 몸짓을 익히는 과정의 끝없는 반복, 익히기와 해체하기의 무한한 반복이야말로 춤꾼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것이다. 거리의 춤꾼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들은 거리에서 언제나, 이미 새롭게 태어난다. 그렇게 부산 춤은 생생하게 되살아난다. 젊은 춤꾼들과 함께, 그리고 다시, 부산은 춤의 고장이다.

거리 춤과 함께, **한**

임병원 제20회 바이올린 독주회 바이올린의 아우라에 취하다

글·김윤선 음악평론가 사진·금정문화회관



부산에서 예술문화 장르별로 새로움과 관록을 함께 보여주는 예술가, 특히 음악가는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바이올리니스트 임병원은 끊임없는 노력과 자기만의 탐구적 연주 방식을 만들어가는 연주자로 인정해야 한다.

임병원의 바이올린 연주회 레파토리를 먼저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차이코프스키 멜로디 Op.42

영화 '해바라기'에서 우크라이나를 배경으로 스크린을 매료시켰던 명곡. '멜로디'는 차이코프스키가 후원자인 폰 메크(Nadezhde von Meck) 부인 소유의 우크라이나 영토에 머무르면서 마무리하였다. 우크라이나의 비옥한 토양의 정기와 소중한 추억을 바탕으로 하여 아름답고 감상적인 흐름으로 완성하였으며, 지금껏 가장 널리 사랑 받는 대표곡 중 하나다.

슈만의 연가곡 '미르테의 꽃' 중 '콘솔레이션'(현정)

슈만이 아내 클라라에게 헌정하는 곡이기도 하지만 사랑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곡으로도 유명하다.

밀 슈타인이 편곡한 리스트의 '콘솔레이션'(Consolation, 위안, 위로)

이 곡은 리스트가 러시아의 카롤리네 비트겐슈타인 백작 부인과 바이마르에서 사랑의 도피 생활을 하던 중에 작곡한 곡이다. 행복한 나날을 음악으로 표현한 연가곡 중 가장 유명한 곡이라 할 수 있다.

생상스의 '죽음의 무도'

1874년 프랑스의 시인 앙리 카잘스의 시를 인용한 '죽음의 무도(Danse Macarabe)'라는 개념은 중세 시대 죽음 앞에서는 계급도 물질도 소용없고 만물이 평등하다는 진리에 바탕을 두었다. 중세 말을 휩쓸었던 흑사병과 영국과 프랑스의 백년전쟁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겪었던 죽음의 공포, 그리고 죽기 전 인생을 즐기고 싶다는 감정들이 열병처럼 퍼져 문학이나 그림의 중심 소재로 자리 잡았던 시대적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생상스의 가장 유명한 4편의 교향시 중 한 곡인 이 곡은 죽음의 신이란 존재가 신경질적으로 괴기스럽고 우스꽝스런 해골·괴물들과 함께 어울려 노는 한밤의 무도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크로이처'

5번 '스프링' 소나타와 함께 많이 알려진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로서 프랑스의 유명 바이올리니스트 크로이처(Kreutzer, Rodolphe)의 이름을 따서 붙인 곡이기도 하다. 6번 교향곡인 '영웅'과 같은 해에 만들어진 곡으로서 마치 협주곡처럼 피아노와 바이올린의 연주 비중을 함께 끌어가야 하는 연주곡으로서, 바이올린만큼이나 피아노 파트 역시 역할 부담이 큰 높은 소나타다. 제1악장은 전체적으로 열정적인 테마를 중심으로 하며, 아름다운 카덴차(cadenza)의 등장, 피아노와 바이올린이 대화를 나누는 듯한 연주 흐름 등이 매력적이다. 제2악장에서는 서정적인 테마가 깊이 스며드는 분위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제3악장은 화려한 무곡풍의 선율이 지배하는 화려하고 빠른 피날레 악장이다.

빠른 듯 가볍게, 가벼운 듯 빠르게

사랑을 모토로 한 이번 무대는 피아노와 더불어 바이올린이 함께하는 연주의 극적인 선율을 감상할 수 있었던 무대였다. 낭만주의 시대의 비르투오조인 프란츠 리스트는 성악곡이나 오케스트라 곡들을 피아노곡으로 편곡하였으며, 그 중 리스트의 가곡 '사랑 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를 피아노로 편곡한 '사랑의 꿈'을 바이올린 연주로 감상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현악기 중 독주악기의 대표 격인 바이올린은 어떤 연주자와 호흡을 함께하는가에 따라 소리와 울림이 달라진다. 웅장하고 몸집이 큰 독수리가 아닌, 마치 제비와 참새의 비행처럼 빠른 듯 가볍기도 하고 가벼운 듯 빠르기도 한 바이올린의 특성과 개성을 연주자 임병원은 적절한 완급의 소리로 잘 표현해냈다.

특히 슈만의 연가곡 '미르테의 꽃' 중 'Widmung'(헌정)이 임병원의 바이올린으로 울려 퍼질 때, 사랑인 듯 아닌 듯 극적인 바이올린 선율이 장내를 휘감았다. 숨 멎을 듯한 표정과 지그시 감은 듯한 실눈으로 무대를 바라보았던 청중들은, 근래 보기 드문 바이올린 소리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크로이처를 연주할 때는 마치 피아노에 끌려가듯 바이올린 소리는 꿈틀거렸고, 바이올린 소리에 피아노가 묻혀 끌려오듯 낮게 울렸다.

피아노와 완벽한 음악적 소통 보여

독일계 프랑스 작곡가 이면서 바이올린 연주자인 크로이처는 프랑스 악파의 창시자중 하나로 손꼽히며 당대 지휘자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1798년 빈에서 베토벤과 교류가 시작되었고, 베토벤은 크로이처를 위해, 현재 '크로이처 소나타(Kreutzer Sonata)'로 불리는, 피아노와 바이올린위한 소나타A장조 작품47을 헌정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크로이처는 연주를 하지 않았다.

이후 크로이처는 파리 오페라극장 등에서 바이올린 독주자로 활동하기도 했으며, 바이올린 연주자 피에르 바요, 피에르 로드와 함께한 바이올린 기법 (Méthode du violon)과 40개의 연습곡과 카프리스(Études ou caprices)는 지금껏 바이올린의 대표적 교습서로 자리 잡고 있다.

이곡은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10곡 중에서 가장 뛰어난 불후의 명곡이며 대작으로 임병원 교수의 데뷔 때 이미 이곡을 20회 독주회에서 연주할 것을 결심하고 야심차게 준비한 레퍼토리다. '크로이처' 소나타라 이름 붙여진 것은 베토벤 자신이 프랑스의 대 바이올리니스트인 크로이처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기도 하며 그에게 헌정하기도 한 소나타이다. 이곡은 소나타라 이름 붙여지기엔 사실 규모가 크고 협주곡만큼 기교가 난해하다. 피아노 반주에서도 바이올린 독주만큼이나 비중 높은 고난도의 테

크닉이 출현하는 것으로 알려진 곡이다. 크로이처 소나타 전악장이 연주되는 동안 피아니스트 아마카타 아키라 씨와 임병원 교수는 베토벤의 음악에서 볼 수 있는 음악적인 섬세함과 다이내믹의 대비, 조밀한 짜임새를 놓치지 않고 표현하였으며, 방대한 규모의 소나타가 연주되는 동안 두 연주자는 실 틈 없이 원활한 프레이징 처리로 음악적 완벽한 소통을 보여주었다. 1악장의 대담한 표현과 피아노와 바이올린의 섬 없는 대화, 특히나 빈번하게 등장하는 더블 스톱핑(여러 음을 동시에 내는 기법)은 극적이고 팽팽한 긴장감을 피아노와 더불어 자아내고 있었다. 2악장에서는 서정적 멜로디를 깊고 풍부하게 표현하며 다양한 배리에이션의 변화를 재연했다. 3악장의 탄탄한 구성력 위에 짜여진 32분 음표의 진행은 빠른 패시지를 처리하는 순발력과 긴장과 이완을 함께 가져다주는 절묘한 호흡을 보여주어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를 불러 일으켰다.

새로움과 관록을 함께 보여주다

부산의 바이올리니스트 임병원의 연주회에서 바이올린은 몸집이 작은 현악기임에도 불구하고 무겁고 어두운 음색으로 청중을 압도하기도 하고 숨이 멎을 듯 섬세한 소리를 내기도 하여 바이올린만의 아우라를 여실히 느낄 수 있게 했다.

근래 찾아보기 드물게 교육자로서 탐구적 자세를 갖고 있는 임병원의 20회에 이르는 독주회를 통해 우리는 그의 음악세계를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었다. 부산에서 예술문화 장르별로 새로움과 관록을 함께 보여주는 예술가, 특히 음악가는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바이올리니스트 임병원은 끊임없는 노력과 자기만의 탐구적 연주 방식을 만들어가는 연주자로 인정해야 한다. 그 이유를 묻는다면 임병원만의 바이올린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악**



Culture +

'Culture +'는 예술가를 직접 만나고, 숨어있는 예술 공간을 찾으며, 문화트렌드, 세계문화 등 다양한 영역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소개합니다. 일상에서 지나치기 쉬운, 그러나 치열하게 꿈틀거리는 우리 문화예술의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문화로 플러스 되는 삶을 꿈꾸며...

80. 화제의 예술인_ 활화산 같은 열정으로 병마를 극복하다

86. 젊은 그대_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예술,
고단하지만 몽클한 젊음

90. 공간_ 2011 부산 회춘프로젝트가 함께 한 공간

94. 네트워크_ 팜페라 듀엣 휴[HUE]
용기 있는 결단이 그들을 전진하게 했다

98. 세계문화 ③_ 쇠북을 울리는 카리브의 영혼, 노팅힐 카니발

한명희

부산대학교 음악연구소 소장

활화산 같은 열정으로 병마를 극복하다

피아니스트로서 손가락의 인대가 끊어지고, 암 투병을 하고...

생사의 기로에 선 상황에서도 한명희 교수는 부산대학교 음악연구소 소장을 맡아
놀라운 열정을 발휘하며 지역의 열악한 음악문화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글·김원명 사진·한명희, 김원명

가을빛이 짙어가는 10월의 끝자락에 한명희 교수를 찾았다. 부산대 장전캠퍼스 마루에 자리 잡은 음악관을 찾아가다 눈에 들어온 미리내 계곡은 벌써 울긋불긋한 색동옷으로 갈아입고 있었다. 최근 현대식으로 멋있게 신축한 음악관 404호, 그의 연구실이다. 연구실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피아노 선율은 이 계절과 멋지게 어울린다. 방해가 될까 쉽사리 노크를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다. 소박한 옷차림에 환한 얼굴의 한명희 교수가 반긴다. 2009년 말에 암 수술을 한 환자의 모습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건강한 모습이다. 찝찝한 헤어스타일만이 그에게 일어났던 일을 넌지시 추측하게 만든다.

김원명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전에 연주회나 사적인 자리에서 교수님을 많이 뵈었는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하게 되니 좀 쑥스럽기도 하네요. 아직 몸도 온전치 않으신데 쉬셔야 할 휴일에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죄송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한명희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았어요.

피아니스트로서, 음악교육가로서 선생님의 지난 시간들에 대해 모르는 바 아니지만, 오늘 이 기회에 선생님의 살아오신 인생 역정과 예술 활동, 그리고 최근 병마가 닥쳐오고 그것을 극복하신 일들을 선생님의 육성을 통해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일곱 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어요. 제일 위 오빠와는 무려 스무 살이나 차이가 나요. 어머니와 제일 위 오빠도 스무 살 차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를 마흔에 낳으셨다는 말이지요. 초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가 다른 친구 어머니들보다 너무 나이가 많아 어린 마음에 부끄러워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는 언니나 오빠들보다 유독 저를 챙기셨어요. 언니들이 저를 많이 질투하기도 했죠. 일곱 남매들 중 음악을 공부한 것은 저밖에 없었어요. 다른 형제자매들은 일반 공부를 하거나 글을 쓰는 쪽으로 진출했는데, 저한테만은 끈질기게 음악 공부를 시키셨어요. 어머니는 피아노가 저의 살 길이라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한명희 선생의 말씨는 필자가 듣기에 전형적인 서울 말씨다. 게다가 말을 참 맛깔스럽게 잘 하시는 편이다. 지금은 육순을 넘긴 연세라 인생의 중후함이 풍겨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느껴지는 곱상한 외모와 말씨, 가끔씩 툭툭 던지는 장난 끼 있는 농담들 사이로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성장한 귀여운 막내딸의 모습이 엿보인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다 했던가. 지금도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또 많은 사랑을 주며 사는 그의 모습이 필자의 머릿속에서 그의 성장 과정과 오버랩 된다.

선생님 말씀의 역량을 들어보면 부산 쪽은 아닌 것 같은데 고향은 어디입니까?

그동안 피아니스트로서 또 교육자로서 활동하시면서 어려운 일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음악 역사에 수만이 무리한 연습으로 손가락 인대를 다쳤던 일화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수만도 요즘 태어났더라면 고칠 수 있었을 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회복이 되어서 천만 다행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후에 그보다 더한 시련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2009년 가을학기에 연구년을 얻어 출국했는데요, 작년 여름 귀국해서 선생님께서 암 투병 중이시라는 소식을 지인으로 부터 전해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후 제가 선생님을 어느 음식점에서 뵈었을 때 아직도 항암치료로 힘들어하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지금은 많이 회복되셔서 걱정을 덜었습니다만, 병마가 닥쳐오고 또 싸우실 때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죠.

제 아버님은 고향이 김해인데 해운공사에 근무하셨어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관세청 같은 곳이죠. 또 어머니는 고향이 부산과 가까운 함안 유동이었어요. 아버지께서 근무지를 옮겨 다니다 보니 언니들은 부산 경남여고를 졸업하게 됐죠.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공부했어요. 유학을 갔다 와서 지난 1982년 부산대학교에 예술대학이 신설되면서 음악학과에 부임하게 되었죠. 그해 부산에서 첫 독주회를 가톨릭 센터에서 열면서 지금까지 저의 친구이자 조력자가 되어 주고 있는 박숙자 씨와 그때 처음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제가 부산에서 활동한 지도 거의 30년 됐네요.

살면서 어려운 일이 어디 한둘이겠어요?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지난 97년에 손가락을 다친 일 같아요. 독주회를 나흘 앞두고 갑자기 왼손 새끼손가락 인대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절망적이었죠.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해 놓은 연주회를 포기할 수도 없어 손가락에 봉대를 감은 채 청중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연주회를 강행했지요. 그 이후 일 년이 넘도록 연주를 하지 못하고 치료에만 매달렸어요. 정말 그때의 좌절감이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피아니스트로서의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죠. 다행히도 수술 경과가 좋아 손가락이 차츰 회복되어 다시 연주를 할 수 있게 되었죠.

저는 제 몸에 이런 병이 생기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살았어요. 남들이 다 하는 건강 검진도 받지 않고 학교와 피아노만 알고 살았죠. 그런데 어느 때부터 내 몸에서 뭔가 조그만 게 만져지기 시작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래도 별 일 아닐 거라 여기고 지내다가 마침내 병원에 들러 진단을 받아보니 2기 암이라는 선고를 받고 말았죠. 임파선 몇 곳까지 전이가 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지난 2009년 12월의 일이에요. 그래서 바로 수술을 했지요. 혹시 피아노 연주에 필요한 근육들이 다칠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어요. 그런데 항암 치료 과정은 정말 힘들었죠. 머리카락 빠지는 것은 참을 수 있는데, 자꾸 손가락 끝의 신경 감각이 둔해져서 혹시 피아노 치는데 문제가 생길까 그걸 극복하느라 무척 걱정하고 애썼어요. 다행히 지금은 괜찮아요.

피아니스트 손가락의 인대가 끊어지고, 암 투병을 하고... '긴 인생을 살면서 뭐 그 정도 시련이야...'라고 생각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장면들이다. 사실 겨우 오십 줄에 들어선 필자 연배들도 벌써 몸을 사린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는 것이라는 말에 공감하지 않는 '용감한' 자들을 찾기란 쉽지 않다. 그런데 한명희 교수는 생사의 기로가 아직 분명해지지도 않은 시기에 시쳇말로 '돈 안 되고 품 안 나'는 일거리 하나를 덤석 맡았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렇군요. 선생님의 건강이 이제 많이 회복되시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무리한 활동을 하는 것은 몸에 좋지 않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부산대학교 음악연구소 소장 일을 맡으셨어요. 더구나 내년 8월이면 정년을 앞두고 계신데, 대개 이런 시기에는 힘든 일을 후배 교수들에게 넘기고 퇴임 후의 여생을 계획하며 편안한 말년을 보내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오히려 남이 하기 힘들어 하는 일을 자진해서 맡으셨는데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부산은 서울에 비해 음악회 문화가 너무 낙후되어 있어 항상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좋은 연주자를 초청하는 것도 어렵거나와 아무리 좋은 연주회라 해도 관객들이 찾아와 주지 않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이런 열악한 지역 음악문화를 개선하는 데 제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해서 나선 것뿐입니다. 또 마침 우리 대학교에 콘서트홀이 생겼고, 다행히도 저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지인들이 기꺼이 스타인웨이 피아노를 기증해 주시기도 해 제가 연구소 운영에 큰 힘을 얻을 수 있었지요.



한명희 교수는 부산대학교 음악연구소 〈2011 콘서트 시리즈〉 팸플릿 인사말에 이렇게 적고 있다.

“지난 5월 연구소 후원에 동참해 주신 피아니스트 서울대 박종화 교수는 ‘음악은 누구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모두의 것이지만 누구도 가질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가질 수 없는 ‘음악’은 사람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서로에게 행복을 전합니다. 부산대학교 음악연구소는 10월 17일 후원자들을 위해서 피아니스트 서혜경 독주회를 마련합니다. 감성과 지성, 그리고 폭풍이 치는 듯한 격정적인 그의 연주는 듣는 모든 분들에게 큰 감동을 줄 것입니다. 근사한 연주홀도 아닌 곳, 많은 청중도 없는, 조건도 없는 이 연주회를 약속한 뜻은 음악을 사랑하시는 후원자에게 선물을 드린다는 서혜경의 겸손한 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구소장을 맡으신 지 이제 불과 반년 남짓한 시간이 흘렀는데, 벌써 굵직한 업적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백스코에서 서혜경 초청 연주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해서 지난 가을 시즌 동안 모두 여덟 차례의 콘서트 시리즈를 마련하셨지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일을 하셔서 그런지 선생님도 연구소 일을 하신 지 벌써 몇 년 지난 듯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추진해 나가려면 일손도 많이 필요하고 재정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할 텐데요?

선생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선생님께서 그동안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신 결과겠지요. 정말 부럽고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식사 시간도 지났고 선생님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 이제 인터뷰를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지역 음악계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십시오.

사실 무척 어렵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재정이겠지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하고 가까운 지인들에게 솔직하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최근 투병 생활을 해서인지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선뜻 도와주셨어요. 연구소를 시작한 지 한 달 동안 수천만 원의 기금을 모았어요. 이 분들 덕분에 연구소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번 서혜경 독주회에 소요된 비용도 모두 후원자들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해운대 달맞이고개 쪽에 스튜디오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혹시 연주회 전에 리허설을 할 장소가 필요하거나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부담 가지지 말고 제 스튜디오에 오시면 좋겠어요. 피아노도 스타인웨이라 괜찮거든요. 외지에서 부산을 찾은 연주가들도 편안히 연습할 장소가 마땅히 없다보니 제 스튜디오를 많이 찾아 왔는데요, 정경화·백건우·신수정·임동혁·백혜선·서혜경·박종화 씨 등 많은 유명한 연주자들이 다녀갔어요. 또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피아니스트들이 연주회 전에 자기 연주를 한번 들어주고 조언을 줄 사람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찾아주길 바랍니다. 혹시 이렇게 말하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까지 이런 일에 경제적 보상을 받은 적이 없어요. 아무 부담 없이 오시면 돼요. 지역 음악계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기만을 바래요.

인터뷰를 정리하는 단계에 접어들면서, 부산에 훌륭한 원로 음악가들이 계시지만 지역 음악계의 표상이 되어 후배들이 진심으로 존경하며 따르고 있는 어른은 그리 많지 않다는 생각이 스친다. 그리고는 슬그머니 한 교수님께 그 속내를 비친다. ^{국악}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한 교수님의 젊고 건강한 모습이 아직 제 머리 속에 생생한데 이제 곧 정년을 맞으시게 된다니 섭섭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저는 교수님께서 지역 음악계를 정신적으로 이끌어주시는 어른으로 계속 남아주신다면 후배로서 바랄 게 없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무리하게 활동하셔서 건강 잃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말씀을 듣고 싶지만 선생님께서 너무 힘드신 것 같아서 또 다음 기회를 기대하면서 오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예, 선생님.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명 ● 서울대학교 문학박사(음악학). 문화일보 신춘문예 음악평론 당선. 경성대학교 음악학부 교수. 한국음악융용학회 회장. 부산시 문화예술위원회 위원. 금정수요음악회 음악감독. 저서로 〈연주와 비평〉, 〈소리의 시선〉, 역서로 〈베토벤 천재 만들기〉 등이 있음.

예, 비록 힘은 들었지만 모처럼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염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제게 남은 시간들을 지역 음악문화 발전과 제자들 육성하는 일에 쓸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이제 배가 너무 고프네요, 점심 식사 하러 갑시다. 인터뷰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예술,
고단하지만 뭉클한 젊음

이정민

팝핀댄서, 헤어아티스트, 타투아티스트

글·사진·류성효 독립문화기획자

타투아티스트로서 그가 가질 수 있는 만족감과 타투를 원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만족감이 일치하는 순간의 희열. 그 희열이 주는 가치가 그를 쉽지 않은 타투아티스트로 지탱시킨다.

길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10여년 문화판에서 일을 하면서 장식처럼, 훈장처럼 예술을 언급하거나 달고 다니는 사람들을 종종 목격하게 된다. 딱딱하게 학습된 예술, 필요 이상으로 과장된 의미로 예술이라는 것을 치장하는 듯한 상황은 목격하는 입장에서조차 불편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에 대한 갈증이 더 심해지는 것의 이유라고 할 수 있을까? 정신없이 일에 파묻혀 살아가야 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가끔이라도 여유를 가지고 냉정하게 주변을 돌아보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곤 한다. '라울 바네quem'에 따르면 스펙터클의 사회에서 인간은 삶을 불지연정 살지는 않는다고 했다. 혹은 완전무결한 그 무엇인양 제시되는 '보여지는 것'(예컨대 '좋은 삶의 표본')을 모방하면서 살 뿐이라는 말을 한다. 즉, 우리는 우리에게 제시된 삶을 소비하지 우리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 또한 이렇듯 적극성이 제거된 삶은 권태로움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스펙터클의 사회는 '권태로움의 사회'이기도 하다고 주장한다. 40여년 전 쓰여진 라울 바네quem의 이야기는 놀라울 만큼 현재의 모습과도 닮아 있다고 느껴진다. 기획자라는 일을 하면서 함께 길을 걸어가야 할 아티스트를 찾는 작업은 그래서 늘 진정성과 적극성을 모티브로 '창조의 열정, 사랑의 열정, 유희의 열정'이 충만한 사람을 찾는 것으로 설명된다. 주어진 표본을 모방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아티스트, 그가 바로 팝핀 댄서, 타투아티스트, 헤어디자이너로 설명되는 이정민이다.

류성효 ● 독립문화기획자. 뒤편게 미술을 시작해 10여 년 전부터 독립문화를 기반으로 한 기획활동을 해 오고 있다. 대안문화행동 재미난복수 예술감독,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부산회춘프로젝트 총감독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이와 국가와 인종과 종교를 초월해 함께 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겠다는 다소 벅찬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다.



이정민, 그를 설명할 수 있는 한마디

가볍게 주변 친구들에게 그를 설명할 수 있는 한마디에 대해 물었다. '어떤 음악이 나와도 춤을 출 수 있는 댄서', '팔방미인, 못하는 게 없다', '10년이 넘는 시간을 한결같이 살아온 사람', '과장하지 않는 은근한 힘', '늘 밝지만 늘 고독한 청춘', '방랑자', '어디에서건 자기 역할을 해 내는 사람', '도전하는 청춘,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든 전문가 수준까지 스스로를 끌어 올리는 불가사의한 사람', '아티스트로서 자기를 중심에 두지 않고 늘 함께 하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플레이를 하는 몇 안 되는 아티스트'...



즉흥의 팝핀댄서, 이정민

듣고 싶은 이야기가 대부분 주변 친구들과의 가벼운 대화에서도 드러나는 걸 보니 그가 이제껏 고생은 했어도 가볍게 살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더 굳어진다. 2000년대 초 거리공연을 기획하면서 처음 만났던 현란한 팝핀 댄서 이정민의 변화무쌍 도전기는 그가 작업을 보는 태도와 철학을 명쾌하게 보여주는 드라마다. 중학교 재학시절 마이클 잭슨의 뮤직 비디오를 보면서 입문한 춤의 세계. 나이와 무관하게 춤을 계속 하고 싶어 선택한 팝핀이라는 장르는 상대적으로 신체에 무리를 주지 않는 춤이라는 장점 외에 순간적으로 어떠한 상황, 음악에서건 춤을 출 수 있다는 그만의 특징을 더해주었다. 물론 모든 팝핀 댄서가 그와 같이 음악과 상황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그의 긍정적이고 폭 넓은 호기심이 드러난다. 유희의 열정에 투철한 호기심이 더해져 진지하게 여러 아티스트와 함께 호흡하는 것을 생활화 한 그이기 때문에 가능한 체감된 '즉흥성'이 댄서로서의 그가 가진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다.

이정민의 타투와 네피헤어에 대해

그의 매력은 춤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는 팝핀 댄서라는 정체성 외에 타투아티스트와 헤어디자이너로서의 존재감도 강력하다. 합법 여부를 떠나 암묵적으로 묵인되며 이미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은근히 확장되고 있는 타투의 세계에서도 그의 태도는 특별하다. 2000년대 중반 늘 스케치북을 가지고 다니며 그림을 익히고 돼지 껍데기를 사서 연습하는 긴 시간동안 줄곧 그는 왜 타투를 하는가에 대한 대화를 멈추지 않았다.

이야기가 있는 그림, 어떤 한 개인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가장 궁극적인 형태의 비주얼아트가 타투라는 이야기를 꺼내 놓으면서 한층 더 진지해지곤 하던 그의 태도는 늘 변함이 없다. 타투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그 사람을 알기 위해 종종 1년이 넘는 시간동안 관계를 가지고 이해를 선행한 후 스케치를 시작한다. 인터넷 검색창에 타투를 치면 나오는 수많은 타투숍에서 시술할 수 있는 타투와 그가 하는 타투가 다른 점이다. 또한 그는 타투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지도 않다. 타투아티스트로서 그가 가질 수 있는 만족감과 타투를 원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만족감이 일치하는 순간의 희열. 그 희열이 주는 가치가 그를 쉽



않은 타투아티스트로 지탱시킨다. 오히려 그에게 수익이라는 부분에서 기여를 한 것은 헤어디자이너로서의 일이었다. 소위 '네피헤어'가 그의 전문분야다. 보통 흑인머리라고 하는 드레드, 블레이즈, 에어리언, 아프로펌 등이 네피헤어의 세부 분야다. 그가 처음 독학으로 시작해 인정받은 후 서면 공구상가쪽에 '잭슨파마'라는 작은 숄을 열었을 당시 네피헤어를 할 수 있는 미용실은 부산에 거의 없었다. 때문에 네피헤어를 배우고자 하는 미용실 원장들에게 강의까지 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렇듯 헤어숍을 운영하고 타투를 익히고 팝핀 댄서로 공연을 하러 다니면서 틈틈이 하모니카도 연습하기 시작했고 머지않아 하모니카도 주변 뮤지션들과 함께 합주를 할 수 있을 만큼 수준급이 되었다.

이정민, 진짜 그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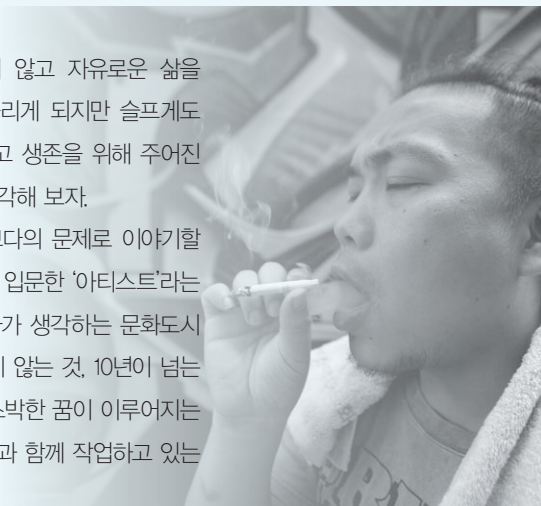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면 밤을 새워도 모자랄 만큼 열심히 스스로의 모습을 고민하고 도전하고 실천해 온 사람. 투정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체념할만한 상황도 많았건만 곳곳하게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긍정적으로 작업을 하는 그에게 어떤 기회가 있을 법도 한데 아직도 힘겨운 시간은 계속되고 있다.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 많이 받아요. 그래도 뭐 주변 댄서들 대부분 다 힘드니까 제가 특별히 힘들거나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올해 처음으로 부모님께 용돈이라는 걸 드려 봤는데 기분 좋더라고요. 꿈? 하고 싶은 일이에요? 물론 제가 연출하고 출연하는 저만의 작품을 다양한 아티스트와 함께 만들어 보는 거구요, 더 나이 들기 전에 세계 여러 나라를 다양한 댄서나 아티스트와 교류하면서 여행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 자주해요. 그런 기회가 있으면 보다 더 성숙한 고민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고, 부산이라는 도시의 이야기도 많이 전해주고 싶고...”

독립적인 아티스트가 필드에서 사라지지 않길

예술이라는 말을 하면, 예술가라는 말을 하면 뭔가 틀에 갇히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거나 무언가를 계속 개척해 나가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되지만 슬프게도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딱딱한 입시를 통해 예술대에 진학하고 생존을 위해 주어진 법칙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노출되는 것이 다반사인 상황을 생각해 보자.

'좋은 삶의 표본, 출세하는 삶의 방법'을 따라 가는 것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필자가 뒤늦게 미술을 시작하면서 입문한 '아티스트'라는 대상의 이미지는 창조와 사랑과 유희의 열정이 충만한 개척자다. 필자가 생각하는 문화도시 부산의 조건은 이정민과 같은 독립적인 아티스트가 필드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청춘을 관통해 진정성 강한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는 그의 소박한 꿈이 이루어지는 도시, 화려하게 노출되지 않았지만 꾸준히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작업하고 있는 그의 가치가 인정받는 것이다. **국영**





공간에 덧칠을 하다 2011 부산 회춘프로젝트가 함께 한 공간

글·사진·송교성 생활기획공간 통 공동대표

풋말을 세워두고 차도와 인도로, 산책로와 휴식공간으로, 주거지구와 상업지구 등으로 구분지어 두는 것은 애초부터 변화의 가능성을 봉쇄하여, 도시를 늪어가게 한다. 더군다나 이러한 구분은 문화 그 자체를 영화관, 미술관, 공연장 등 특정한 장소에서만 즐길 수 있는 것으로 한정짓게 만들어 버린다.

***부산 회춘 프로젝트**가 시도한 다양한 실험 중의 하나는 바로 도시 공간의 재해석을 통한 문화생성이었다. 온천천, 길거리 등 본래 생활을 위한 필수영역으로서의 도시 공간의 기능과 패턴을 수용하되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덧칠해보고, 시민들이 삶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문화적 공간으로서의 가치 부여를 시도하였다. 이를 통하여 문화라는 것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접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것임을 알리고 다양한 시민들과 함께 소통함으로써 문화적 숨결을 도시에 불어넣으려는 것. 그것이 회춘 프로젝트가 지닌 목적 중의 하나였다.

온천천, 도심의 마당이 되다.

도시의 발전과정에서 하천의 생명이 훼손당하듯 몇 십년간 죽음에 직면했던 ***온천천**이 점차 복원되어가는 요즘 부산대학교 인근의 온천천도 유동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인근 학교의 등·하굣길, 직장인들의 출·퇴근길로 이용되고 있으며 상시적으로 산책이나 자전거타기 등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이곳에서도 다양한 문화적 시도가 일어나며 온천천에 새로운 문화적 가능성을 부여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래피티'였다. 실제로 온천천 그래피티의 경우 '똥다리'라 불리며 생활하수 악취와 삭막한 분위기로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던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여타 지역과 달리 부산대학교 학생들과 인근 주민의 지지, 언론의 긍정적인 평가 속에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그래피티 작가들 모두가 그림을 남기고 싶어 하는 성지와 같은 공간이 되었고, 해외까지 알려지게 되어 국경을 초월한 다양한 지역의 작가들이 이곳에 그림을 남기게 된다. 그리하여 온천천은 한국 그래피티 작가의 메카가 됨과 동시에 소통과 공유가 원활한 일상예술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나, 관청의 이해부족으로 지금은 그 자취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아트마켓 아마존'은 2010년 부산대학교 상가 골목에서 시작되었는데, 2011년 3월부터는 꾸준히 주말마다 온천천의 산책길을 따라 길게 아트마켓을 열기 시작하였다. 아마존의 작가들은 단순한 판매에 그치지 않고, 체험 행사나 공연 개최 등을 통해 장터가 가진 본래적 의미인 교류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온천천에 펼쳐보았다.

이러한 시도들이 온천천 공간이 지닌 특유의 긴 '선'을 활용하여 파노라마 형식으로 예술가와 시민의 접점을 구성한 사례라면, 회춘 프로젝트의 <온천천 문화살롱>은 사람들이 한데 모일 수 있는 '면'으로서 온천천의 공간을 활용하였다. 온천천의 이쪽과 저쪽을 잇는 큰 교각과 주변의 널찍한 공간을 무대이자, 놀이터 그리고 시민들의 작은 광장으로서 기능하게끔 하고자 했다.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오후에서 저녁까지의 시간대를 활용하여 산책 나온 시민들을 대상으로 음악다방, 온천천 캔버스, 예술포차, 댄스 무대 등 참여 가능한 커뮤니케이션 형태의 문화행사를 주로 시도해보았다.

이러한 기획에 분명 낯설어하는 시민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생각지도 못한 평범한 생활의 장소에서 마주치는 작은 특별함에 신기해하고 즐거워하며 함께 호흡하였다. 특히 아마존과 온천천 문화살롱이 함께 펼쳐지던 매주 토요일의 온천천은 그야말로 예술가와의 만남의 장소이며, 동네 주민들이 한담을 나누는 교류 공간이자, 청년문화로 한바탕 흥겹게 어우러지는 장소로 탈바꿈되는 등 온천천은 '도심의 마당'으로서 새로운 장소성을 가지게 되었다.

***「부산 청년문화 생태계 구축을 통한 문화활성화 프로젝트- 회춘프로젝트」**는 부산문화재단 '2011 지역문화예술기획사업'에 선정된 프로젝트이다. 지난 7월 15일부터 부산의 청년문화예술인들과 함께 부산대학교 일대에서 온천천 문화살롱, 100일 릴레이 거리공연, 공연배달, 네트워크 워크숍, 사운드 퍼니처, 청춘상징 조형물, 스트리트 아트, 네트워크 페스티벌 등 다양한 형태의 문화적 행사를 통해 시민과 소통해왔으며, 현재 청년문화 웹아카이빙, 매뉴얼북 출판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 부산 온천천**은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등을 지나는 긴 도시 하천이며, 본 글에서 언급하는 온천천은 금정구의 부산대학교 지하철역 밑 주변 온천천을 말한다.

거리, 무대가 되다.

외국의 문화나 여행지를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에서 빠지지 않는 것은 각 지역의 오래된 거리의 모습이다. 작은 노천카페, 재래시장 등의 삶의 모습과 소소한 거리공연(Busking)에서부터 대규모 축제 퍼레이드 등이 펼쳐지는 바로 그 거리에 각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적 힘이 녹아있기 때문이다. 즉, 지역문화의 정체성이 생성되는 곳도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이 삶을 살아오고 생활하는 일상적인 공간들에서 비롯된다.

그런 의미에서 부산대학교 일대의 거리들은 역사적으로 집회나 시위 등 기존 체제에 저항하던 곳이자 인디문화의 거점으로서 부산이라는 도시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공간이다. 특히 부산대학교 정문 앞 도로로는 시민의 목소리를 내는 광장이자, 다양한 문화행사가 진행되는 공연장으로서의 장소성을 가지고 있다. 부산대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대안문화행동 * '재미난복수' 등 다양한 부산지역의 문화예술단체들이 이곳에 매번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 왔던 것이다. 차량이 통제되고 무대가 세워지는 순간, 거리는 축제의 시간으로 접어들다.

이러한 공간적 특징을 지닌 부산대학교 일대에 회춘 프로젝트는 '일상'의 의미를 덧칠하는 시도를 시작하였다. '그 곳에 가면 항상 무언가 있을 것이다'라는 인식을 조성하고, 거리 분위기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공연과 조형물 작업이었다. 한 건물 전체가 영업을 하지 않아 분위기가 가라앉은 거리에 <비가오나 눈이오나 릴레이공연>이라고 직관적으로 이름 붙여진 거리공연(Busking) 프로젝트가 시도되었다. 점차 매일 같이 찾아오는 시민들이 생겨나고, 공연을 신청하는 예술가들도 점점 늘어갔다. 별다른 시설이나 화려한 이벤트 없이 작고 소소한 공연들의 연속만으로도 일상적으로 지나던 평범한 거리가 공연장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부산대학교 지하철역 주변 뻥뻥한 상가로부터 살짝 떨어진 자투리 공공 공간에는 벤치와 같은 휴식 기능에 청년문화의 대표적인 코드인 음악을 기능적으로 동반한 조형물 '사운드 퍼니처'를 설치하여, 장소의 활용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잠시 쉬어가며 음악을 즐기고, 약속을 기다리는 이들이 생겨나면서 공간에는 또 다른 의미가 덧칠되기 시작했다.

누군가에 대해서 그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단정 지어 말하는 것이 위험한 일인 것처럼 어떠한 공간에 대해서도 단 하나의 의미만을 부여하는 것은 그 공간의 다양한 기능을 죽이는 일이다.



* 2003년 부산대 앞 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거리축제에서 시작된 <대안문화행동 '재미난복수'>는 비영리 문화운동 단체이자 서브컬처적 문화기획과 행사를 진행하는 단체이다. 특히 지역에서 다양한 사회적 이슈 - 인권, 반전, 환경, 빈곤, 여성, 장애인 문제 등 - 를 중심으로 사회단체나 문화단체와 결합하여 활동하는 등 독립문화의 영역에서 전국단위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부산의 대표적인 문화단체다. 현재 금정구에 위치한 <독립문화공간 아지트>의 운영주체이며, 부산 회춘프로젝트 대표단체다.



- 1 온천천 문화살롱
- 2 네트워크 페스티벌
- 3 사운드 퍼니처

무한한 가능성

실제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익숙해져 평범해 보이는 도시의 공간들은 얼마든지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부산은 무궁무진한 문화적 가치들이 잠재되어 있는 지리적 특성과 역사를 품고 있다. 부산의 곳곳마다, 거리마다 새로운 문화적 의미들을 덧칠해 나간다면 지역 문화의 활성화도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 대단한 기획이나 어마어마한 예산이 필수요소는 아니다. 주변의 익숙한 공간에 끊임없이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실험하고 재해석해 보는 상상력, 바깥에서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과 눈높이를 마주하며 함께 호흡하는 실천력이면 충분하다. ^{국산}

송교성 ● 사회학 강사이자 생활기획공간 통 공동대표, 부산 회춘프로젝트 사무국장을 역임하고 있다.



팝페라 듀엣 휴[HUE]

용기 있는 결단이 그들을 전진하게 했다

글·박진홍 음악평론가 사진·팝페라 듀엣 휴[HUE]

확신에 찬 꿈이 있었다.

그리고 용기 있게 결단했다. 거친 파도와
가시밭길을 걸으면서도 꿈을 향해 계속
전진했다. 한발 한발 꿈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의 발자국들. 그들의 성공은
스스로를 도운 그 다음에 있었다.

“그는 첼밥통 버리고 뭐하는 기고? 음악해서 묵고 살기 어려운 거 뻔히 알면서.

젊은 객기도 아이고, 쫓쫓. 후회할 건데. 마, 치아라. 으이?”

많은 사람들이 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에게 시립합창단원의 자리는 가장 안정적인 직장 중 하나다. 그런 첼밥통을 기어이 남에게 던져 주고 프리랜서로서의 가시밭길을 가려는 사람들에게 독자들은 뭐라 말하겠는가.

필자가 휴[HUE]라는 이름으로 류무룡, 김지현을 만난 것은 2005년 그들의 첫 연주회를 통해서였다. 당시 성악가들이 대중적인 레퍼토리들로 관객들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분위기가 이미 구성되어 있었기에 필자는 휴[HUE] 역시 그런 이벤트성 프로젝트 무대를 보여 주는 정도 이상의 의미를 담지 않았었다. 하지만 벌써 7년여의 시간을 활동하며 이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까지 이루어 낸 시점에서 2005년 당시의 첫 무대는 최초의 팝페라 듀엣 결성의 뜻 깊은 자리였던 것이다.

첼밥통을 버리고 새로운 항해를 시작

류무룡, 김지현 두 사람의 아름다운 음색에 푹 빠졌던 그날의 첫 무대 이후 두 사람은 각자의 첼밥통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음악, 새로운 무대를 향한 거친 항해를 시작했다.

팝페라는 1997년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지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팝음악(Popular Music)과 오페라(Opera)의 합성어이며, 1980년대부터 시작된 크로스 오버의 한 형태다.

팝페라 무대에서 남녀 가수가 듀엣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두 가수가 팀을 이루어 듀엣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2005년 이후 휴[HUE]는 국내에서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창의적이고 도발적인 시도를 과감히 시작한 것이다. 사실, 한 팀으로서의 듀엣은 무대 위와 아래에서 큰 장점을 가진다. 우선 2시간여의 콘서트를 번갈아 가며 무대를 구성해 가수들의 부담을 덜어, 각 개인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가수 각자가 서로 다른 음악적 스타일로 관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으며, 듀엣을 통한 하모니를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다이나믹한 무대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휴[HUE]의 경우, 단아하고 감성적인 여신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김지현과 중후하면서도 감미롭고 때로는 강렬한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입담 좋은 류무룡은 무대 위에서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최상의 커플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은 부산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각종 콘서트와 영화 음악 작업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적지 않은 팬 층을 확보하고 있는 휴[HUE]이지만 영광의 시간 보다는 고난의 세월이 더 길었다.

고난의 시간 이후 맺은 결실

2005년 결성 이후 2008년 디지털 싱글 1집 'To con Te'를 발표하면서 공식 데뷔하였지만 여전히 주변의 시선은 걱정과 시샘들로 가득했다. 안정적인 직장을 버린 것뿐만 아니라 문화 불모지라는 오명을 좀처럼 벗고 있지 못한 부산에서의 시작이기에 더욱 험난하리라 모두들 예상했던 것이다.

휴[HUE:]는 데뷔 이후 음악활동에 필요한 작곡, 작사, 편곡, 녹음, 음반 제작과정 등의 제반과정을 자체적으로 소화해 왔다. 대부분의 경우 소속사와의 계약 관계를 통해 외부 음반 제작자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음악적인 부분의 모든 과정에 가수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음악적 색깔과 능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더불어 매니저이자 음악 디렉터, 기획자로서 휴[HUE:]의 모든 활동 과정을 그려 내는 이상호는 관객들에게 보여 주고자 하는 모든 것의 방향을 효과적으로 구체화 시키고 있다.

휴[HUE:]는 가수이면서 직접 자기 소개서를 작성하고 여러 무대의 문을 두드리 공연의 기회를 잡았지만 이미 성악가로서 기성 연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음향과 무대 환경에서 무명이라는 수모를 겪으며 출연료도 받지 못하고 연주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을 향한 강한 의지와 음악적 노력은 차츰 결실을 맺었고, 팝페라에 관심을 가지는 무대 관계자들과 대중들로부터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휴[HUE:]는 데뷔 이래 현재까지 디지털음반 4개, 비정규 싱글 앨범 2개를 출시했는데, 매 음반마다 그들만의 색깔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최근 출시된 앨범 '그리움너머'는 잘 알려져 있는 동요와 가곡 등을 어쿠스틱 악기만을 이용하여 새롭게 작·편곡하여 제작되었다. 이 앨범은 아무런 프로모션을 하지 않았음에도 기존의 팬들과 공연을 통해 초판이 매진되었으며 수록곡 중 윤동주의 대표적인 시에 곡을 붙인 '서시'는 일본에서 공식 유통 제의를 받은 상태이다.

시네페라의 새로운 장르 개척하다

현재 휴[HUE:]는 첫 번째 정규앨범을 준비 중이다. 영화음악의 감성과 팝페라를 접목시킨 '시네페라(CinePera)'라는 새로운 장르의 음악에 도전하고 있는데, 국내 대표적인 영화음악 작곡자인 노형우와 함께 1년여 동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노형우는 휴[HUE:]의 음악적 감성에 이끌려 첫 번째 정규앨범의 프로듀서를 맡게 되었다. 이 앨범은 4개 국어로 가사가 만들어져 국내를 벗어나 일본과 미국, 이탈리아를 겨냥하고 있다. 국내 음반 시장이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최근의 상황으로 보면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성공가도에서 더 큰 비상을 준비하다

음반 활동의 성공을 통해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지만 음반 이전에 휴[HUE:]의 존재가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이다.

2008년에 종영되었던 드라마 <정조 이산>의 OST를 팝페라 버전으로 리메이크하여 불렀던 '약속'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소개되면서 엄청난 관심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팬들과 팬 카페가 만들어졌다.

2009년, '천의 바람이 되어(千の風になって)'라는 일본 곡을 한글가사로 불렀던 녹음 동영상이 유튜브에 소개되면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였고, 동영상을 본 한 일본인에 의해 일본 기획사에 소개되어 일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웹사이트를 통한 관심의 확산으로 휴[HUE:]는 한 해 한국과 일본에서 100여회의 공연을 통해 관객들을 만나고 있다.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과 함께 그 동안 국내 및 일본의 기획사들에게 실력을 검증받아 국제행사에서부터 자선공연까지 수많은 무대에서 대중들에게 그들만의 감성 짙은 음악을 들려주고 있다.

특히 활동의 출발지였던 부산에서는 '예감콘서트'라는 살롱 콘서트를 3년 동안 한 달에 한 번 진행하면서 휴[HUE:]자신들의 무대와 더불어 부산지역의 젊은 연주자들을 부산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최근에 열렸던 36회 예감콘서트에는 부산시민들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까지 단체로 관람을 와 더 이상 살롱콘서트가 아닌 부산을 대표하는 크로스 오버 콘서트로 거듭나고 있음을 실감케 했다.

현재 휴[HUE:]는 일본 현지 에이전시를 맡고 있는 Master & Piece기획을 통해 12월부터 본격적인 프로모션작업에 들어가 내년부터 오사카, 후쿠오카, 도쿄 등지에서 단독 콘서트 등의 일본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더 큰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한>

박진홍 ● 부산교육대학교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경성대학교에서 음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음악평론가로서 다양한 음악회 해설과 각종 음악 잡지의 연주 리뷰를 통해 음악의 아름다움을 전하려 하고 있다.

쇠북을 울리는 카리브의 영혼, 노팅힐 카니발

글 · 이승욱 문화기획자
사진 · 영국관광청, 노팅힐 카니발 웹사이트

점잖은 신사의 나라 영국에서 배꼽을 드러낸 무희들이 판치는 광란의 축제라니! 남미형 카니발이라는 특색으로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는 노팅힐 카니발, 그 축제의 열기 속으로 들어가 본다.

런던 시내에 위치한 노팅힐은 휴 그랜트와 줄리아 로버츠가 출연한 같은 이름의 영화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지역이다. 하지만 이곳에는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있다. 해마다 8월 하순에 열리는 노팅힐 카니발이 그것이다. 영국에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정하는 공휴일 개념이 없다. 대신 은행이 문을 닫는 날에 다른 회사들도 함께 쉬는 전통이 있는데 이런 휴일을 뱅크 홀리데이(Bank Holiday)라고 부른다. 8월 마지막 월요일, 여름 뱅크 홀리데이(Summer Bank Holiday)에 겹쳐진 연휴 기간에 이 지역에서는 유럽 최대의 거리축제로 꼽히는 노팅힐 카니발이 열린다.

○●○ 세속적인 가치를 높이 받들라

노팅힐 카니발은 1960년대 중반부터 자생적으로 시작됐다. 이 축제의 주인공은 유럽으로 건너온 카리브해와 남미의 이주민들이다. 축제 기간 동안 영국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몰려든 100만 명이 넘는 라틴아메리카 이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한 데 뒤섞여 광란에 가까운 이 축제를 즐긴다. 노팅힐 카니발은 런던에서 열리지만 니스 카니발이나 베니스 카니발과 같은 전통적인 유럽 카니발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다. 노팅힐 카니발은 화려한 열대의 의상과 라틴의 열정적 리듬으로 가득 차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과 같은 열기를 떠올리면 된다. 이런 남미형 카니발의 특성을 이해하려면 카니발의 기원과 전래 과정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럽에서 카니발은 고대 농경사회의 전통과 기독교의 문화가 만나면서 시작되었다. 기독교의 전통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앞둔 사순절(부활절 이전 40일)은 황량한 별판에서 수행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재현하는 금욕기간이다. 이 금욕의 사순절 직전에 술과 고기를 마음껏 먹고 마시며 즐기는 축제가 허용되는데 이 풍습이 카니발의 기원이 되었다. 카니발의 시기는 보통 2월 중순쯤으로 정해진다. 이 시기는 농경사회의 절기로 보면 겨울을 지내고 다시 농번기로 접어드는 시기, 춘궁기에 해당된다. 어쩌면 사순절의 금욕은 종교적 의미를 넘어 식량이 귀한 춘궁기를 이겨내는 생활의 방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금욕기간을 앞둔 주지욕립의 향연은 다시 힘든 노동을 시작하며 한 해의 풍요로운 수확을 기원하는 농경민들의 바람을 담아낸 풍습이라 할 것이다.

카니발의 풍습은 인류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의 오래된 관심 주제 중의 하나이다. 카니발의 기간에는 시대와 나라에 따라 풍습이 다르지만 가면을 쓰고 신분을 숨긴 채 기존의 신분질서와 금기에서 벗어난 일탈행위들이 용인되었다. 그리고 우상과 악령을 형상화한 커다란 종이인형을 만들어 거지의 왕, 대장장이의 왕을 뽑기도 한다. 엄숙한 봉건질서에서 벗어나 일탈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하층민들의 세속적인 가치를 오히려 높이 받드는 풍습이 널리 행해졌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카니발은 교회가 지배하였던 중세유럽의 다른 전통과는 확연히 구별되었다. 카니발은 전복과 해방의 에너지가 충만한 민중적 축제형식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오늘날 유럽의 전통 카니발은 근대화 이후 농경사회의 뿌리가 해체되면서 니스나 베니스의 사례처럼 지나치게 관광 상품화되었다.

근대 이후 카니발의 충만한 에너지는 오히려 카리브해와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복원되었다. 라틴 아메리카의 카니발은 식민지 시대에 유럽의 문화가 전파되면서 카리브해의 작은 섬,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지역은 토착민인 웨스트 인디언과 식민지 개척을 위해 건너온 유럽의 이주민들,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흑인노예들까지 더해져 독특한

카니발은
전복과 해방의 에너지가
충만한 민중적 축제다.
한번이라도 참가해본 사람이라면
광란에 가까운 그 열기를 결코
잊지 못한다.

이승욱 ● 서울대학교 미학과를 졸업하고
뉴욕 콜럼비아대학에서 예술
행정을 전공했다. 독립예술제,
춘천인형극제, 장무국제예술제
등 다수의 공연예술축제 기획
에 참여했다. 최근 '광안리 사
람들'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지
역문화지 <안녕 광안리>를 발
행하고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를 시도하고 있다.

혼성문화가 만들어지는 공간이다. 이 지역의 카니발은 토착 하층민과 흑인노예들이 유럽에서 온 지배계층의 풍습을 모방한 것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이 모방은 단순히 흉내에 그치지 않았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배경으로 구성된 하층민들의 독특한 음악, 악기, 놀이가 결합되면서 라틴 아메리카 고유의 색채와 리듬을 가진 축제형식으로 발전하였다. 노팅힐 카니발은 아 이러니하게도 식민지 시대에 유럽에서 전파된 라틴아메리카의 카니발이 식민지 시대가 끝나는 시기에 이주민들과 함께 다시 유럽으로 역수입된 경우이다. 이와 유사하게 뉴욕에서도 해마다 8월이면 라틴아메리카 이주민들이 벌이는 북미 최대의 브룩클린 카니발이 열린다. 노팅힐 카니발과 브룩클린 카니발은 원래의 절기가 아니라 여름철에 개최된다. 라틴 아메리카 카니발 특유의 열기와 분위기를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 고단한 일상을 벗어나려는 열망의 표출

지역과 풍습에 따라 카니발의 모습은 달라져도 그 속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유럽 전통 카니발의 주역은 봉건질서와 교회에 억눌려 있던 기층 민중들이었다. 라틴아메리카의 카니발 역시 식민지배의 억압에 짓눌려 있던 토착민들과 흑인 노예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유럽과 북미에서도 라틴 아메리카 이주민들은 여전히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하층민의 신세이다. 이들의 일상이 고단할수록 그 일상을 벗어나려는 열망은 커지고 카니발의 열기도 더욱 고조된다. 이들에게 카니발을 하지 않을 때는 뭘 하느냐고 물으면 그 나머지 시간에는 카니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이들은 카니발에 미쳐있다. 그래서 이 카니발에 한번이라도 참가해본 사람이라면 광란에 가까운 그 축제열기를 결코 잊지 못한다.

라틴 아메리카 카니발에는 화려한 가장행렬과 열정적 리듬을 이끄는 스틸드럼이라고 불리는 독특한 쇠북악기가 등장한다. 보통 북은 그 자체로 음계를 표현하지 못하고 박자와 장단을 맞추는 리듬악기, 합주악기로 인식된다. 하지만 이 악기는 매우 투박한 모습이지만 드럼통 위판에 크기가 다른 홈을 만들어 음계를 표현하고 그 자체만으로도 놀랍도록 정교한 음악을 만들어낸다. 식민지 시대에 유럽에서 건너온 지배계층은 하층민들의 소란을 방지하고 통제하기 위해 전통악기와 놀이를 금지시키곤 했다. 그 때 카리브 지역의 노예들과 하층민들이 식민지 주둔군대가 아무렇게나 길거리에 내다버린 드럼통을 두들기면서 이 악기가 탄생하였다고 한다.

혹시 이런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 한국인들은 미군이 남긴 기름통을 두들겨서 시발택시를 만들어 근대화의 길로 매진하였다면 이들은 쇠북을 만들어 밤새도록 두들기며 그들만의 영혼의 울림을 만들어냈다. 그 결과 한편에서는 기적 같은 고도성장을 이룩하였지만 공동체 문화의 전통은 그 뿌리까지 철저히 파괴되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저개발의 저주가 짙게 드리워져 있지만 그 멍에에 구속되지 않은 열정적 에너지를 분출하며 살아가고 있다. 서로 다른 이 두 가지 역사적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평가할지는 각자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 한글

《공감 그리고》 창간호를 보고



이번 5월에 열린 ‘춤, 생명 페스티벌’은 가히 획기적이었다. 대학로 한 칸에 무대를 구성하고 시민들과 소통하고자 했던 거리축제. 그 곳엔 춤꾼과 시민 그리고 부산의 문화가 꿈을 거리고 있었다. 거리 축제란 자칫 잘못하면 유동인구에게 괜히 인짱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그래서 관심조차 끌지 못하고 온전한 축제가 되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하지만 이 부산의 거리에서는 그러한 염려가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다양한 시민층이, 어르신들과 꼬마아이까지 거리축제에 흠뻑 빠져들었고 춤꾼들의 화려한 몸놀림은 거리의 곳곳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 채움에 반하고 열정에 반해 같이 즐기는 모습을 내내 보던 나까지도 그 속에 녹아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문화를 움직이는 사람들과 함께 만드는 이 즉흥적인 공간에 새로운 창작과 새로운 문화에 대한 새 지평을 여는 이 곳 ‘거리’. 부산에는 진흙 속에 숨어 있는 진주와 같은 거리가 곳곳에 존재한다. 부산 그 자체가 품고 있는 바다의 향이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문화가, 거리 축제라는 이름으로 새로이 조명되고 부산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부산은 아름다운 골목거리축제로 유명한 문화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임지은_ 30세

부산에 대한공간이라는 문화공간이 있다는 것을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 e-book, <공감, 그리고>를 읽고 처음 알게 되었다. 지금껏 부산에 살면서 이 좋은 공간들을 가보지 못했다니! 홍보가 부족했던 것인지 내가 관심이 없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대한공간을 만나게 되어 기쁘다. 대한공간은 문화를 더욱 가까이서 가깝게 즐길 수 있는 흥미로운 장소이다. 특히, 일광에 위치한 오픈스페이스 배 같은 대한공간은 꼭 한번 방문해 보고 싶다. 나들이도 하고 문화도 즐기는 일석이조의 장소인 것 같다. 앞으로 인디고서원, 뽕, 백년어서원 등 부산의 대한공간이 널리 알려져 젊은이들이 모이는 ‘핫 플레이스’가 되었으면 한다. 조형진_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동

‘우리들의 이야기’ 참여 안내

‘우리들의 이야기’는 시민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참여마당입니다. 《공감 그리고》에 바라시는 점과 가을호와 관련한 의견, 또는 부산문화예술 각 장르별 비평 등을 보내주시면 몇 건을 채택, ‘우리들의 이야기’란에 게재할 계획입니다.

선정되시는 분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글 보내주시는 곳 : yoona@bscf.or.kr (2012년 02월 15일까지 / 선정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문의 : 051-745-7223

《공감 그리고》는 무가지로 발간되므로 별도의 구독요청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을 비롯해 구·군 문화회관, 미술관 및 대형서점 등에 배포됩니다. 또한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www.bscf.or.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장소의 탄생’... 나는 그곳에 가고 싶다



글 • 최학림 부산일보 논설위원

민족문학의 큰 봉우리인 요산 김정환이 최고로 밀고 나간 것은 ‘지역’을 소설에 썼다는 것이다. P시, N읍, K군 따위 익명의 이니셜을 겹쳐치우고 그는 범어사 사하촌, 낙동강 조마이섬, 사뱃재, 원동 화제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가 밟았고 살았고 체험했던 장소 팩트(fact)가 확실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를 또 다른 기자로 본다. ‘이름 모를 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투철한 팩트 정신에 다름 아니다. 소설가에게 팩트라니? 그러면 그의 작품을 팩션(action)이라고 할까(?).

실제로 그의 작품들은 팩트가 스스로 말하게 하는 듯한 묘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그걸 문학평론에서는 리얼리즘 어쩌구 하는데 투박하나 선 굵은 주름살이 스스로 품거나 새기고 있는 매혹적인 깊은 맛이 있다. 하기가 ‘지, 역과’ 장, 소가 얼마나 많은 함의를 지니고 있는가. 헤겔을 거꾸로 세운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전회처럼 알고 보니 우리는 땅과 장소에 발을 딛고 사는 것이며, 소설이 삶을 문제 삼는 것이라면 당연히 장소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요산은 작품에서 선구적으로 ‘장소적 전회’를 실행한 것이다. 그 점은 특별하게 도드라지지 않았으나 조갑상, 구모룡 같은 간간한 소설가, 평론가가 요산을 반복적으로 읽고 해석하면서 돌아왔다. 그리고 장소에 주목하는 글쓰기는 그 중요성이 공유되면서 널리 퍼졌고 이리저리한 개별·집단지 성과를 내기에 이르렀다. 이런 걸 창조적 계승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참 기이한 풍경은 글쓰기에서 장소의 발견은 도시공간학, 도시디자인의 진화와 맞물리면서 특히 부산에서는 도시재생 담론의 확대와 산복도로 르네상스, 그린웨이, 원도심 문화예술창작공간, 부산시민공원, 중앙광장, 북항재개발, 강동 창조도시를 거론하는 문화정책의 ‘공간적 전회’와 앞서거나 뒤서거나 했다는 점이다. 여러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것인데 요컨대 공간과 장소의 발견은 큰 흐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공간과 장소에 대한 주목은 도시의 재발견에 값한다. 이를테면 복잡한 도시는 벗어날 곳, 전원으로 떠나기 전에 피로한 삶을 소진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없지 않았으나 이제는 도시를 삶의 터전으로 가꾸자는 것이다. 도시에서 가정과 직장, 그러니까 제1 공간과 제2 공간과는 다른 제3공간을 찾아내고 만들자는 말이다. 여가공간, 휴식공간, 문화공간, 역사공간 따위가 그것이다.

공간과 장소는 어떻게 다른가. 공간이 물리적 단위라며 장소는 정서적 단위이다. 공간은 일체감을 부여하는 누적된 경험에 의해 비로소 장소가 된다. 결국 도시인의 삶 속에 장소가 많아야 한다는 것이다. 더 많은 장소를 발견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전에 금정산 금샘에 대한 짧은 글을 쓴 적이 있다. 바위가 신령스럽게 반쳐들고 있는 금샘은 부산 태초의 신화가 깃들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일제강점기에 한 일본인 학자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었다. 금샘에서 범어(梵魚, 즉 금빛 물고기가 떨어뜨린 금비늘이 또 다른 염원처럼 계곡의 물로 흘러내려 범어사 선방 밑으로 흐르고 그 깨달음의 물은 온천천을 통해 부산을 적셔나가는 것이다. 그곳에 부산 사람들이 살고 있다. 금샘뿐이랴. 동래순절도에 나와 있는 기왓장을 던지는 무명의 두 의녀를 보면 뭔가 얘기를 꾸미고 싶어 입이 근질거리고, 60년대 조선방직 공장 앞 커다란 수양버들 아래 손이를 기다리던 철수의 얘기도 찾아내고 싶은 것인데 이것들이 모두 부산이 품은 장소를 재발견하는 것일 터이다. 아니, 내 어릴 적 뛰놀던 보수동과 부민동의 골목을 찾고 싶기도 한 것이다.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가 그려져 있다. 바야흐로 아담과 하느님의 손가락 끝이 닿으려 하고 있다. 창조의 순간이 에타기만 한다. 저 손끝만 서로 닿으면 섬광이 쏟아질 것이다. 부산의 곳곳은 그 손끝을 기다리고 있다. 장소가 탄생하는 찬란한 그 순간을.